

청년생활

6

1963



백두산이 보인다 (유화)

그림 림 백

청년생활

1963. 6 (16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평양 대화력 발전소 건설장의 《1,211고지 청년 돌격대》원들

촬영 리 종록

권두언

청년들은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우리 시대는 혁명과 투쟁의 시대이다.

국제 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두 체계 간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국제 반혁명 세력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정면으로 대치하여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그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물질적 준비와 함께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물질적 력량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우려는 사상적 각오가 되여 있지 않을 때에는 물질적 력량은 자기의 응당한 생활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사상적 무장은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사상 사업에 제 1 차적 관심을 돌려 왔으며 특히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의 초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상적 준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사상 수양에서 기본 문제는 철저한 계급 의식, 로동 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을 로동 계급의 립장과 관점에서 고찰하고 처리하며 당과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 분투하는 혁명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산주의 수양에서의 기본 문제이다.

최근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의 계급 의식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인류의 모든 불행과 재난의 근원이다. 전 세계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는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는 격렬한 판가리 싸움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조선 혁명과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다.

* *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에 불타며 그를 반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다. 제국주의는 타국을 침략하고 자원을 략탈하며, 약소 국가 인민들을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고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며, 범죄적인 인종 차별 정책으로 타국 인민들을 멸시하고 모욕한다. 략탈과 침략이 없이 제국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그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침략적 본성과 악랄성, 잔인성과 함께 그의 부패성과 취약성,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깊이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는 썩어 가고 죽어 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극소수의 백만장자들이 부패하고 기생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에 수억만 근로 대중은 실업과 빈궁, 질병과 무지몽매에 허덕이며 빈번히 일어 나는 공황은 생산을 감퇴시키고 패덕과 범죄, 불안과 공포가 전 사회를 휩쓴다. 자본주의 세계에 고유한 이러한 부패성과 암흑상은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극도에 달한다. 제국주의 세계에는 또한 로동자와 자본가 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날로 첨예화되며 이 모순으로 하여 제국주의는 쇠약해지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청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만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반제국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 제국주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고 침략과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력사적으로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혁명의 최대의 장애물이며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다. 미 제국주의는 벌써 한 세기 전 무장선 《샤만호》의 대동강 침범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끊임 없이 감행하여 막대한 재부를 략탈해 갔으며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천인 공노할 야수적 죄행을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한 18 년 간에 악독한 식민지 군사화 정책으로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오늘과 같은 암흑 천지로 전락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을 류례 없는 참경에 몰아 넣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3 년 간의 침략 전쟁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고 전대 미문의 야수성과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부모 형제들을 학살하여 온 강토를 원한에 사무친 인민들의 피로 물들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인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물도, 남조선 겨레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모든 재난을 강요하는 장본인도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청년들은 이 모든 력사적 사실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철저한 반미 사상으로 무장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이 지금 남조선에서 계속 감행하고 있는 새 전쟁 도발 책동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 책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살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더욱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와 함께 조선 인민의 오랜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36 년 간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부를 략탈하여 간 철천지 원쑤이다. 이 원쑤들은 오늘 또다시 미제의 비호 밑에 재생되고 있으며 남조선에 재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는 오늘도 여전히 조선 인민과 아세아 인민들을 반대하는 흉악한 침략 세력으로 남아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1948년 민청 제 3 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제의 비호 하에 재생되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또다시 엿보고 있는 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시면서 청년들 속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과거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착취 압박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어떻게 멸종시키려고 하였는가 하는 야만적 비행에 대하여 광범히 폭로》할 것을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일제가 근 반 세기 간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저지른 모든 죄행과 재생되는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하며 그의 남조선 재침략 기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함께 그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의 본질과 반동성을 우리 청년들은 철저히 알아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에 대한 세련된 사환'군 행위》로, 《자본가들 앞에 엎디여 기여 가며 그들의 신발을 핥아 주는 문명한 행위》(레닌)로써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맑스-레닌주의의 변절자이다. 그들은 근로자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계급 협조, 전쟁에 대한 공포증과 염전 사상 등 해독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류포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평가를 부르고 안일 부화하고 혁명에 대한 권태증을 일으키게 하려 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행동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을 미화 분식해 주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혁명 의식과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수정주의의 이러한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만 그들이 류포하는 반동적 사상 독소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할 수 있으며 항상 긴장된 태세에서 자기의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　　　　*

우리 인민은 지난 한 세기에 걸쳐 가장 야만적이며 침략적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왔다.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의 비운 앞에서 우리 인민은 그 어느 한 때도 투쟁의 불'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조국의 자유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 민족적 3.1 봉기와 6.10 만세 투쟁에서,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에서 이 나라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은 항상 투쟁의 앞장에 서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만천하에 떨쳤다.

일제의 파쑈 폭압이 극도에 달하여 생 있는 모든 것이 죽어 가는듯 암담하였던 민족 수난의 그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선진적 애국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에 참가하여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15 개 성상의 기나긴 세월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빨찌산이 높이 추켜 든 반제국주의 기치는 원쑤들의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싸워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해방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 주었다.

항일 빨찌산의 이 숭고한 혁명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온 강토가 불바다로 변하고 강물이 끓어 번지고 바위마저 녹아 나는 그 가렬 처절한 전화 속에서도 동요와 락심과 후퇴를 알지 못하였으며 한 사람 같이 멸적의 전선에 나서 불사조와 같이 싸웠으며 마침내 《세계 최강》과 《상승》을 자랑하던 미제 양키들을 때려 눕히고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애국적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야 하며 항일 빨찌산들처럼 제국주의를 극도로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비타협적이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아직 숨을 끊지 않았으며 칼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있을 수 있는 적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무장을 튼튼히 틀어 잡고 온 강토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인류 력사는 강한 군대가 자기 힘을 과대 평가하고 적을 과소 평가하는 자만심과 현훈증에 걸리여 위험한 시기에 전투적 준비를 망각하고 있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불의의 희생과 적의 앞에서 당황 질주하는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그를 자기의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 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대를 이어 가면서 그와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 각오를 높임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반제국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견결히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부화와 안일을 반대 배격하고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잡고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가 증산하는 한 톤의 쌀과 강재, 한 톤의 석탄과 기계는 곧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기 위한 우리의 힘, 우리의 준비로 된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 겨레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하는 강한 추동력으로 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궐기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위력한 고무로 된다.

우리 시대는 격렬한 계급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자면 우리의 물질적 사상적 무장을 빈틈 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죽어도 혁명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속에서 살며 싸우자》

최 현

국내에로의 재진공을 위하여 몽강현 남패자를 출발하신 김 일성 동지는 1939년 4월 초 장백현 북대정자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하시고 산하 각 부대들의 승리적인 1938~1939년 동기 활동을 총화하시였다.

이어서 김 일성 동지 령솔 하의 각 부대는 장백현 구가점, 15 도구, 반절구 등 일련의 전투를 진행한 후 5월 18일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 청봉, 삼지연 등지를 거쳐 무산 지구에 도달하셨다. 그리하여 그 곳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를 완전히 해방하고 지방 인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한 다음 대홍단'벌에서 추격하여 오는 일제 국경 경비대와 경찰대 수백 명에게 섬멸적 타격을 줌으로써 적들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또 한 번 심대한 패배를 주었다.

김 일성 동지께서 친솔하신 부대들이 장백 지구와 국내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을 때에 우리 부대는 안도현, 화전현일대에서 교란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투는 매일과 같이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적들은 많은 일본인 《정예 부대》를 투입하여 왔으나 전투 때마다 우리에게 참패를 당하군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저절로 쉽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군사 인원으로 보나 무장으로 보아서 적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세하였다.

이와 같은 강적과 싸워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은 것은 오직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전략적 령도와 함께 우리 매개 전투원들의 사상 상태가 놈들보다 월등하게 우세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들은 조국과 혁명, 그리고 부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도 돌보지 않았으며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으로 전우를 대신하는 불보다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들이였다.

1939년 여름이였다. 나는 3 방면군의 한 부대를 인솔하고 천보산에 있는 광산 《집단 부락》의 적을 습격하게 되였다. 그 때 이 광산 부락에는 일본 수비대를 비롯하여 위만군, 경찰대, 자위단, 일본 《이민단》 등이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2 중 3 중으로 로동자들을 압박하며 착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원쑤놈들을 소탕함으로써 광산 로동자들에게 혁명적 기세를 높여주었으며 적지 않은 로동자들을 우리 대렬 내에 받아 들였다.

우리는 새로 입대한 광산 로동자들을 그 날 밤으로 일부 대원들과 함께 후방 밀영으로 행군케 하였다.

그리고 우리 련대의 주력은 천보산 서쪽 약 20 리 지점에 있는 펑펑한 수림 속에 림시 숙영지를 정하고 휴식하면서 닥쳐 올 새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가 서산 머리 우에 기울어질 무렵 망원 초소로부터 로두구 쪽에서 일본 《토벌대》 놈들이 밀려 온다는 보고를 보내 왔다.

놈들은 중국 관내로 깊이 침입한 후 다시 몽고를 침공해 보려고 발악하던 일본군 중에서도 선발된 소위 《관동군 정예 부대》로서 그 중에서 《군무 만기》가 되여 일본으로 돌아 가던 놈들이였다. 로두구 역에 당도한 놈들은 우리 인민 혁명군 부대에 의하여 그 전날 천보산 광산 부락이 습격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용맹스런 일전》을 해 보겠다고 곧바로 천보산에로 달려 온 것이였다.

놈들은 그 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약 2 키로 떨어진 산협에서 물'곬을 따라 림시 숙영지를 정하고 여기 저기 불무지를 피워 놓고 있었는데 입수된 대강한 정보에 의하더라도 그 병력이 300여 명이나 되는 대부대였다.

그 때 50 명 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이 중무기와 최신식 무기로 장비된 놈들과 싸운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를 포기할 수는 물론 없였다.

지휘부에서는 《공산군과 싸워서 최후의〈공훈〉을 세워 보겠다.》고 달려 드는 원쑤놈들을 섬멸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소수 인원으로 습격조를 조직하여 그 놈들의 숙영지를 밤에 기습하여 일부 력량을 소멸하고 중무기를 파괴하는 등으로 적을 혼란시키고 피로케 한 후에 우리의 주력으로 적을 소탕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각 소대에서는 모두 자기들을 기습조로 보내 달라고 자진해 나섰다.

나는 그 중에서 김 충진 소대와 류경수 소대를 선발하여 두 개의 습격조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의 어려운 전투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부대의 핵심들이였다.

이 때 김 충진 동무의 습격조에는 김자린 동무와 《제 3 보따지》란 별명을 가진 동무도 있었다.

나는 적의 대병력 속으로 떠나 가면서도 활기에 찬 그들의 씩씩하고 미더운 얼굴들을 한참이나 들여다 보았다. 그

눈'동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전투 임무를 어김 없이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빛났다.

시간은 흘러 갔다.

습격조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련대 지휘부가 있는 골짜기에 돌아 온 때는 밤이 퍽 깊어서였다. 그런데 충진 동무는 돌아 오지 않았다.

《련대장 동무! 명령 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충진이가…충진이가…》하고 말을 잇지 못 한 채 쓰러진 동무는 부상 당한《제 3 보따지》를 업고 돌아 온 김 자린 동무였다.

이들 김 충진, 김 자린,《제 3 보따지》등 동무들로 조직된 습격조원들의 불굴의 투쟁 이야기는 바로《천보산의 용사》로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소개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들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들과 맞다들게 되자 무리를 지어 덤벼 드는 놈들에게 수류탄 묶음을 던져 수 많은 적들을 살상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집요하게 추격해 오는 적들과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철수한 것이였다.

이 때 김 충진 동무와 김 자린 동무는 부상 당한《제 3 보따지》를 업고 산'등성이로 올리 뛰게 되였는데 불과 수십 메터의 거리에까지 접근해 온 적들로부터《항복하라》고 악을 쓰는 소리까지 들리게 된 위급한 환경에 처하게 되였다.

부상 당한 동무는 피값이라도 하고 죽겠다고 업힌 등에서 내리려고 몸부림쳤으나 그들은 종내 그를 내려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 충진 동무는 김 자린 동무에게《부탁하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을 적들 앞에 로출시켜 다른 방향으로 내달림으로써 적을 한쪽으로 유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 충진 동무는 두 전우의 생명과 함께 련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혁명을 위한 불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충진 동무의 고매한 혁명 정신은 우리들에게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멸적의 투지를 안겨 주었다.

천보산 줄기에 새 날이 밝아 왔다.

나는 곧 전투 계획을 세우고 행군 명령을 하였다.

산'골짜기 어귀에서 아침 식사를 끝낸 우리는 일부러 나무가 없는 번번한 개활 지대로 걸었다. 천보산 등성이에서 이것을 내려다 본 왜군들이 급기야 우리를 추격하여 왔다.

우리의 전술은 적을 유인하여 때려 부시자는 것이였다. 이 전술에 왜군들이 걸려 든 것이다.

우리는 적들이 산'등성에서 추격해 내려 오는 동안에 다음 산'등성이에 올라서서 뒤따라 기여 오르는 놈들에게 한바탕 명중탄을 안겨 주고는 또다시 다음 산'등성이에 오르군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따라 오는 놈들에게 기관총, 척탄통, 수류탄, 보총 등의 화력으로써 몰사격을 가하여 무리죽음을 주었으나 놈들은 제놈들의 수'적 우세를 믿고《도쓰께끼》(돌격)를 웨치면서 아득바득 따라 다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 날 낮부터 밤이 어두울 때까지 이 산'등성이에서 저 산'등성이에로 끌고 다니면서 도합 일곱 번이나 격전하였다.

온 나절 우리를 따라 다니면서 수 많은 사상자를 내였으며 극도로 피로하였으나《공산군을 소멸하여 최후의 공훈을 세우겠다》고 자진하여 나선 놈들은 그 이튿날에도 결사적으로 추격해 왔다.

우리는 마지막 섬멸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산'등을 넘어 섰다.

드디여 우리가 목표했던 흔들레판이 나타났다. 흔들레판은 그 넓이가 5~6 메터 가량 되는 습지대였다. 우리는 나무를 꺾어 림시로 만든 사닥다리를 놓고 건넜다. 물론 사닥다리는 우리가 다 건넌 다음에 인차 걷었다. 흔들레판을 건너 서면 큰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 마루에는 웅덩이들이 여기 저기 패여 있고 돌무지도 몇 군데 있었다.

나는 지형 지물을 다 돌아 본 다음 기본 대오는 먼저 보내고 일부 성원들만을 이 곳에 매복시켰다. 그리고 기관총 10 문을 큰 나무들에 의지하여 배치시켜 놓았다.

우리의 계획을 알리 없는 적들은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추격해 오고 있었다.

놈들을 멀리 지켜 보던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 전날 밤 전투에서 잃은 김 충진 동무의 장렬한 최후를 생각하며 다시금 천 백 배의 복수를 결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놈들은 흔들레판에 당도하였다.

놈들은 예상치 못 했던 장애물을 만나자 흔들레판 주변에서 우글우글 뭉쳐 돌아 가고 있었다.

벼르고 벼르던 복수전의 시각이 다가왔다. 놈들에 의하여 희생된 한 명의 빨찌산—그것은 적 천 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다.

나의 사창 신호에 의하여 복수의 불벼락이 일시에 터지였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동무들은 적들에게 숨 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겼다. 10 문의 기관총과 척탄통 그리고 보총의 일제 사격을 받고 놈들은 문'자 그 대로 삼'대 넘어지듯 쓰러졌다.

흔들레판은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나 살상 당한 놈들의 비명 소리로 소란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부득불 공세를 방어 태세로 바꾸었으나 결국 흔들레판을 건너 서지 못 하고 수 많은 사상자를 버리고 퇴각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퇴각하는 놈들의 뒤통수에 대고 또 한바탕 불벼락을 안겨 준 후 예정한 지점으로 유유히 이동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 흔들레판에서 수 많은 적들을 쓰러 눕혀 사랑하는 전우의 원한을 풀어 주었으며 정치 군사적으로 놈들에게 또 한 번 심대한 패배를 주었다.

나는 지금도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혁명 동지와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한 김 충진 동무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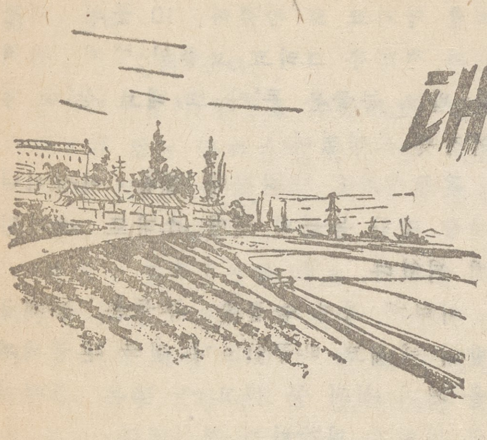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김 충진 동무 한 사람에 한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15 성상이란 장구한 시기에 걸친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우리는 김 충진 동무와 같은 참된 조국의 용사들을 수 많이 잃었다.

항일 빨찌산들은 오직《죽어도 조국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 속에서 살며 싸우자!》라는 고결한 혁명 정신을 가지고 적과 용감히 싸웠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혁명의 길에서》(2)에서—

부모들이 걸어 온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자



대를 이어 가며 싸워야 한다

염주군 다사 협동 농장 마을은 황해의 푸른 물'결이 발 아래 굽어 보이는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부라'벌 가운데 섬마냥 낮은 산'기슭에는 학교와 아담한 문화 주택 마을들이 오붓이 들어 앉아 있다.

어데를 보나 밝고 풍요한 새 생활의 정경이 가슴 흐뭇하게 안겨 온다.

이 고장의 벌과 바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여기에서 살아 왔고 해마다 기름진 열매와 보물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머지 않은 지난날까지 가난한 우리 부모들은 행복의 열매와 보물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고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등뼈가 휘고 살이 찢기도록 착취를 받으며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 왔다…

어느 날 저녁 이 마을의 림 봉현, 홍석윤 로인들은 청년들이 모인 데서 피눈물 나던 과거를 이야기하였다.

원한의 시절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의주군 월하리 고대광실 높은 기와집 옆에는 추녀가 내려 앉고 컴컴한 짐승우리 같은 오막살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림 기호 농민(봉현의 아버지)이 지주 최태호의 행랑살이를 하고 있었다.

림 기호는 봄철이 오면 자기 밭보다 먼저 지주네 밭을 갈아야 했고 여름이면 그의 밭에서 김을 매야 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근근히 몇 뙈기 얻은 땅에 농사라고 지어 놓으면 가을에 가서는 소작료요, 세금이요 하며 다 뜯어 가서 빈 키짝만 들고 돌아 서기가 일수였다.

안해는 밝기 전부터 지주놈의 집에서 밥을 짓고 연자질과 빨래질 그리고 큰 황소 세 마리와 다섯 마리나 되는 어미 돼지를 시중해야 했다.

그러나 지주에게는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다. 손발 하나 까딱 않는 지주'집 년놈은 꼭두새벽부터 고역에 지친 이들을 끝없이 부려 먹었다. 기호네는 뼈빠지게 일하건만 먹는 것이란 부엌 구석에서 얻어 먹는 찬 조밥'덩이가 고작이였다.

그러다가 그만 안해가 덜컹 병이 들었다. 허지만 사람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는 지주놈은 매일 방문을 흔들어 대며 일을 안 한다고 성난 개처럼 우르렁거렸다.

안해의 병은 점점 더 했다. 지주놈을 위해 죽도록 일했지만 돈과 권세만이 앞서는 그 세상에서 그는 죽는 날까지 약 한 첩 못 쓰고 의사 한 번 못 보인 채 눈을 감았다.

안해와 어머니를 잃은 봉현 부자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보다 쌀 한 되'박 없으니 장례 지낼 걱정이 먼저 앞섰다. 무지막지한 지주 최가놈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림 기호는 60 리'길이 넘는 곳에 사는 백 정근이란 지주놈에게 좁쌀 두 말을 꾸어다 장례를 지냈다.

그런데 그 좁쌀 두 말이 더 큰 무서운 입을 벌리고 달려 들 줄 누가 알았으랴!

이 놈은 착취 방법이 교묘하여 가을에 밭을 빌려 준 값으로 겨우내 일을 시켜 먹고는 봄에 땅을 도로 빼앗아 다른 소작인에게 주고 2 중으로 리득을 보군 했다.

선심을 쓰는 척 하던 지주 백가놈은 꾸어 간 좁쌀 두 말과 리자까지 붙여서 당장 가져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당장 빚을 갚을 쌀이 나올 데가 없었다.

백가놈은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며칠 뒤에는 제가 직접 찾아 왔다.

《거 정 사정이 그렇다면 봉현이를 내가 데려 감세, 먹고 입히는거야 걱정일랑 말고.》

남들이야 학교에 간다고 철 없이 뛰놀 나이였다. 그러나 여덟 살 난 봉현이는 좁쌀 두 말에 팔려 《아이보개》로 되였다.

안해를 잃고 귀여운 자식마저 빼앗기는 기호는 가슴을 도려 내는듯 하였다.

팔려 간 봉현이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린 등어리 우에 지주'집 아이를 업어 주고 갖은 심부름을 다 해야 하였다.

허나 그 뿐이 아니였다. 지주 백가놈은 제 아이가 감기만 앓아도 잘못 보았다고 봉현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이 때마다 봉현이는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지었다.

어느 날 봉현이가 집 마당 둘레에 가득 서 있는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몇 알 따 입에 넣은 것을 본 백가놈은 달려들어 봉현이가 피를 랑자하게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사정 없이 때리고 차고 했다. 그 원한의 상처는 지금도 그의 머리에 남아 있다.

봉현이가 철이 들도록 실과를 입에 대지 않은 것은 그 때부터였다.

철없는 봉현이는 이웃집 아이들이 입은 깜장 조끼가 몹시 부러웠다. 백가놈은 겨울 옷을 해 주마고 했으나 섣달이 되도록 봉현이는 헌 로스께를 걸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봉현이는 그 우에다가도 깜장 조끼만 입으면 날 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백가놈에게 솜옷 대신 깜장 조끼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백가놈은

《머슴놈의 자식이 조끼는 무슨 빌어먹을 조끼야! 네 애비가 가져 간 좁쌀 두 말에 너 먹여 준 것만 해도 나한테 백 번 절해야 돼!》하고 버럭 악을 쓰는 것이였다.

한 소년의 소박한 념원인 깜장 조끼

도 솜옷도 모두가 허사로 되였다. 그 대신 지주놈의 배는 불러만 갔다. 그 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짜 낸 피땀으로 천석군, 만석군 부자가 되였다.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소작인들과 머슴'군들은 피땀을 빨리우고 쓰러지다 못해 분연히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 나 피의 보복을 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들과 그를 옹호하는 일제는 그 때마다 더 혹심하게 농민들을 탄압했다.

이 마을의 홍 석윤 로인은 악착스런 지주를 비호하여 나선 일제가 그에게 입힌 상처로 해서 지금껏 괴로워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5여 년 전, 그 때 이 곳 사람들은 지금 야장'간이 차지한 벽돌집만 봐도 치를 떨군 했다.

그 집에는 늙은 지주 함 시철이란 놈이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축 처진 볼따귀에 개기름이 질질 흐르는 지주놈은 늘 손에 묵직한 개화장을 들고 다니며 그것으로 남녀 로소 할 것 없이 작인들을 짐승처럼 때리였다. 그 때 왜놈들은 대륙 침략과 우리 나라의 자원을 무제한하게 략탈해 가기 위해 혈안이 되여 이 곳에 다사항 건설을 벌려 놓았다.

놈들은 여기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로동자들을 억울하게 죽여 바다'물에 던졌다.

함 지주놈은 이러한 일제를 등에 업은 민족 반역자였고 살인귀였다. 권세가 등등한 이 놈은 마음 대로 마을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었고 행패할 수가 있었다.

이 때 홍 석윤에게는 아버지한테서 물려 받은 얼마 안 되는 자기의 땅뙈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한정이 없는 함 지주놈은 그 땅마저 군침이 돌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하루는 주재소 순사놈과 같이 달려든 함 지주놈이 다짜고짜로 땅문서를 내라고 호령질 했다. 이 놈은 무식한 홍 석윤을 속여 몇 해 전에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 석윤은 그것이 땅을 떼자는 수작인 줄은 몰랐다.

하루 아침에 빈 손을 털고 나앉은 그는 어데다 호소할 곳이 없었다. 일제 통치는 무식하고 가난한 그를 옹호하여 주는 세상이 아니였던 것이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지은 농사는 매번 다 빼앗기고 빚만 태산 같이 늘어 갔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빚값으로 어린 딸까지 종으로 빼앗겼다.

눈보라 사나운 어느날 밤, 늙다리 함 지주놈은 난데 없이 생트집을 잡아 위협하고는 소녀에게 수욕을 채우려고 덤벼 들었다.

이를 안 홍 석윤은 피가 곤두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무식한 탓에 땅을 떼웠고 땅이 없어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딸마저 빼앗겼고 이제는 그 어린 꽃송이마저 꺾이게 했으니…

그는 분'김에 함 지주에게 달려 들었다. 그러나 이 때 왜놈들은 함 지주를 비호하여 나섰다.

왜놈들은 범죄자인 함 지주놈을 잡아 갈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홍 석윤을 잡아 갔다.

홍 석윤은 왜놈 주재소에 끌려 간지 1 주일 만에 놓여 나왔으나 그 때는 벌써 반죽음이 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업어 내왔던 것이다.

해방 후 땅을 분여 받고 몸도 어지간히 추섰지만 그 때 받은 어열은 종신으로 남아 있게 되였다…

《결국 지주, 자본가란 외적들을 등에 업은 개놈들이지 조선 사람이 아니요. 김가나 리가나 박가나 최가나 지주는 다 한 몽둥이로 쳐야 하오! 우리와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악독한 원쑤란 말이오!》 이것은 격한 홍 로인의 부르짖음이였다.

× ×

초 여름 밤, 바다에서 불어 오는 시원한 바람이 청년들의 상기한 얼굴을 스쳤다. 어디선가 랑랑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그 바람을 타고 온다.

《가난뱅이로 살던 우리가 오늘에는 빼앗긴 땅을 도로 찾고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였지. 태산이 높다한들 수상님의 은혜에야 비기겠소.》 로인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의 숨'결은 높아졌다.

이 때 한 청년이 불쑥 일어 섰다.

《동무들! 부모들이 지나 온 이 피의 력사를 잊지 맙시다…》 격한 나머지 그는 말을 맺지 못 했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 온 그들, 밀려 드는 조수를 가슴으로 막아 벌판을 지켜 낸 청년들이다.

《…아니, 오늘은 달도 밝은 데 우리 저녁을 먹고 포전으로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그는 겨우 말끝을 맺았다.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낫과 마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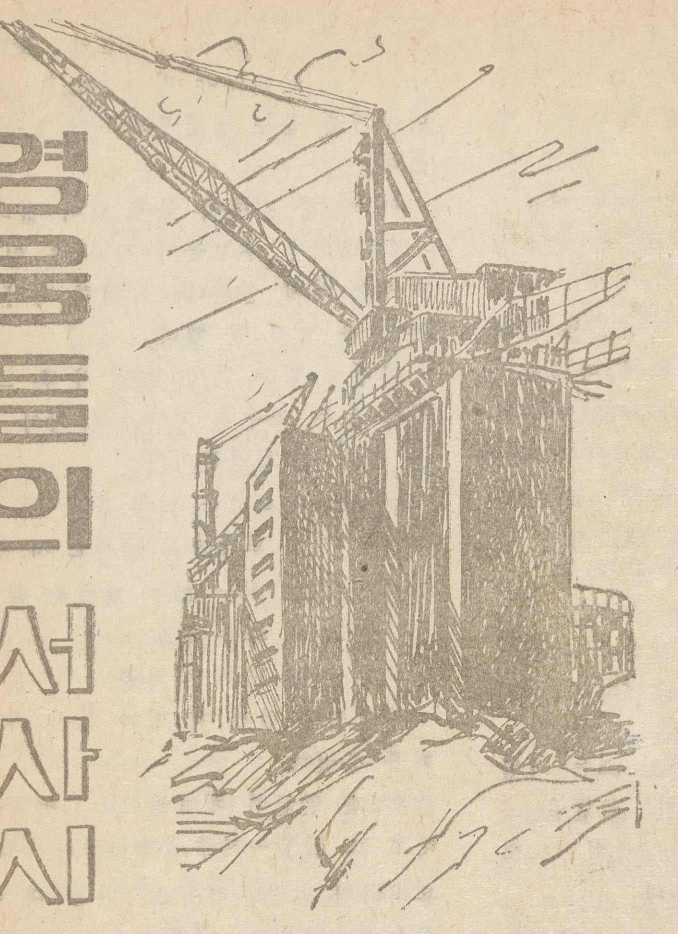
청년들은 벌써 저 멀리 몰켜 가며 노래를 불렀다.

《정말 끌끌한 청년들이요. 저들은 절대로 그 원쑤—지주, 자본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내 손자, 증손자에게까지 그 불구대천의 원쑤들이 저지른 죄악을 말할테요. 그리고 그 때까지도 이러한 놈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다면 대를 이어 가면서 끝까지 싸우라고 이르겠소.》 청년들을 바라보는 봉현 아바이는 이렇게 말을 맺았다.



통신원 조 상봉
본사 기자 한 현준

영웅들의 서사시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에서—

1958년 4월 —

기자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달려 온 피끓는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과 함께 이 곳 발전소 건설 현장에 와 본 일이 있었다.

4월이라 하건만 해발 1,000여 메터의 개마고원 일대는 아직 몸에 백포를 덮고 깊이 동면(冬眠)하고 있었다. 그 때는 말이 건설장이지 황량한 벌판에 지나지 않았다. 오직 강과 그 좌우 안에 일제의 재벌 강계 수전 회사(江界水電會社) 놈들이 1936년부터 근 10년 간이나 역사해 만들어 놓았다는 몇 개의 주행로 교각과 탑들의 잔해가 앙상하게 서 있을 뿐 높은 나무 아지에는 해묵은 까치 둥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강변의 버들 숲에서는 회색 빛 산토끼들이 제 세상인듯 뛰여 다니고 있었다.

그 때로부터 어언 5년이 지났다. 유구한 력사의 흐름에서 이 5년이란 세월은 극히 짧은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이 건설장에 발을 딛는 기자는 이 5년 동안에 우리 시대의 자랑찬 청춘들이 하여 놓은 불멸의 업적과 크나한 기적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토끼들이 뛰여 다니던 버들 숲 우에는 아아한 언제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길게 가로 비꼈고 까치 둥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던 산'비탈에는 4,800 메터의 벨트 콤베야선이며 삭도들이 뻗었다. 만고의 준령 랑림 산맥의 땅속 깊이로는 연연 100 여 리의 웅대한 수로가 관통되였고 아득령 밑에 건설된 제 1 호 발전소의 세 개의 발전기 조립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해 제꼈다. 하여 강계 청년 발전소의 제 1 계단 공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

지난 5 년간—실로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위대한 천지 개벽이 이루어졌다.

기자는 걸음마다 발을 멈추게 하는 우리 시대의 이 거창한 창조물들을 황홀하게 쳐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무명 유명의 영웅들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생각하였다.

그렇다! 바로 저 거창한 창조물이야 말로 우리 시대 청춘들의 당에 바치는 붉고 붉은 충성의 마음과 그들이 흘린 진주 같이 값 비싼 땀들의 집대성인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건설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막히는 고비도 많았다. 그럴 때면 언제나 청년들이 앞장 서군 하였다.

지난 해 5월의 어느 밤이였다. 이 날은 휴식일이였다. 젊은 건설자들의 어느 합숙 호실에서는 세 명의 민청원들이 모여 앉아 열렬히 토론하고 있었다. 5.27 청년 돌격대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인 함 동명 동무와 김 창일, 김 용순 동무들이였다.

《자! 홍수기 전으로 20~21 쇄찌야 구간의 단층맥 굴착을 끝내야 할텐데 어떻게 한다?》

《정말 그걸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오지 않거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인 함 동명 동무가 말했다.

《생각들을 해 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동지섣달 추위에도 입을 것이 없어 홑고이 적삼으로 지냈구 하루 두 끼도 멀건 죽물을 마시며 지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네. 우리 할아버지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할머니의 머리말에 등'불이라도 밝히려고 돈량이나 있는 집에 석유 한 병 꾸러 갔다가 된 구박만 받구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 왔다네.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인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안아 키운 당을 생각할 때 뼈빠지게 일해두 모자랄 것 같네. 어떻게 우리가 휴일이라구 쉬고만 있겠어?》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오로지 시대에 대한 자각과 공통된 책임감으로 하여 하나로 튼튼히 련결되여 있었다.

동명이가 먼츰 일어 섰다. 다른 두 동무도 그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휴일을 맞은 건설장의 밤은 깊이 잠 들고 있었다. 오직 뭇별들만이 잠 들지 않고 총총한 눈으로 이 기특한 《세 용사》의 거동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여 가며 사택 마을과 트레스트 사무실 앞을 지나 굴착장으로 향했다. 작업 현장에 당진해 보니 착암기를 넣은 창고가 자물'쇠에 잠겨 있었다. 서로 난처한듯이 얼굴을 쳐다 보았다. 동명이가 먼저 히죽히 웃었다. 그러자 곧 의미를 알아 차린 다른 《규률 위반자》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 갔다. 착암기와 정'대, 공기 호스들을 끄집어 내였다. 말 없이 작업 준비에 서둘렀다.

잠시후 석 대의 착암기 음향이 잠숙한 굴착장에서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흐뭇하였다. 일 분, 아니 일 초라도 후손만대에 천해 줄 발전소 건설을 앞당기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데 있겠는가! 서로 롱말도 하고 경쟁도 걸면서 신나게 정'대를 굳은 암반에 박았다. 이마에서 땀이 철철 흘러도 쉴 줄 몰랐다. 이 날 밤 그들은 80 개의 발파 구멍을 뚫렀다.

《쾅쾅!》

이른 새벽의 고요를 흔들면서 발파 소리가 온 건설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달려 와 보니 그들은 코'노래를 불러 가며 발파한 버럭들을 밀차로 실어 내고 있었다.

《동무들!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돌격 대장이 나무라자 동명이는 히죽벌죽하면서 말했다.

《대장 동무두 원, 이게 모두 누가 할 일입니까?》

돌격 대장도 하는 수 없이 껄껄 웃고 말았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적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 건설자들의 높은 자각성을 말해 주는 것인가!

금년 가배수로 밑폐를 앞당기기 위한 90일 전투 때였다. 언제 직장의 《불사조 청년 돌격대》원들은 현장에서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자! 기일은 급하지, 집들은 학교'골이요 수채'골이요 하구 멀지. 어떻게 할가?》

어느 한 동무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동무는 현장 부근에 있는 빈 집 한 채를 얻어 꾸리자고 하였다. 가까운 데서 일하다가 잠간씩 눈을 붙이고는 다시 일에 달라 붙자는 욕심이였다.

모두가 달라 붙어 빈 집을 꾸렸다. 그리곤 자기 집에서 이불이며 가마 등속을 지고 왔

다. 직장 일'군들이 아무리 설복하여도 그들은 제 집으로들 돌아 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20 쉬찌야 구간의 타입을 시작할 때 물이 고인 바다 암반 우에는 두터운 얼음이 깔려 있었다. 그 얼음을 까고 암반 우의 오물들을 걷우어 내야 했다. 돌격대원들은 도끼로 얼음을 쩡쩡 까 제꼈다. 일은 인제부터 난처하였다. 허나 당의 부름이라면 진정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어찌 곤난 앞에서 주저하랴! 그들은 앞을 다투어 그 얼음 물 속에 들어 섰다.

얼음 구멍이 옆에서는 마른 참나무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잠간 동안씩 그 우등'불에 몸을 녹이고는 다시 물에 들어 서군 하였다. 가끔 지도 일'군들이라도 오면 구멍이 밖에서 일하는 척 하다가 되돌아 서기만 하면 다시 얼음물에 들어 서군 하였다. 이름난 랑림의 추위도, 얼음도 끌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심장에 활활 타오르는 애국의 불'길이였다. 그들은 26 시간 걸릴 일을 단 12 시간만에 해 제끼고 말았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다.

배가 산으로 오른다!

청년들은 비단 어렵고 힘든 일에서만 앞장 선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 혁신 운동에서도 항상 앞장에 섰다.

진동식 선별기를 제작하여 언제 하류에서 실어 오는 자갈, 모래의 선별 문제를 풀고 년 2만 여 공수의 막대한 로력을 절약케 한 이야기, 진자식 세사기를 만들어 600 %의 능률을 올린 이야기, 종전까지 수입에만 의존하던 절연지와 절연 니스를 자력으로 만들어 국가에 수 많은 리익을 준 이야기…이 곳 공무 수리 직장 로동자들만 하여도 지난 해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105 건의 창의 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1.7 배 이상 높였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여기에서는 오직 그들이 세멘트 운반용 잉크라잉 선로를 부설하던 이야기만을 하기로 하자.

앞으로 제 1 계단 공사가 끝나고 가배수로를 밀페하면 언제 우에는 호수가 생기고 현재의 철도 인입선이 그 호수 속에 잠기게 된다. 그 때에는 배'길을 리용하여 언제의 제 2 계단 공사를 진행할 세멘트를 운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여 운반된 세멘트를 어떤 방법으로 산 중턱 혼합 공장까지 운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혼합 공장까지의 세멘트 수송용 삭도 기둥소 역시 물에 잠기기 때문이였다.

이 때 청년들은 설비부 기사장 리 유경 동무의 지도 밑에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

산 우에까지 잉크라잉 선로를 부설하자! 그리고는 배에다 레루를 깔고 동문거리 역까지 도착한 화물차 바곤을 통채로 밀어 올린 후 기관선으로 끌어다 잉크라잉으로 산 우에까지 끌어 올리자!

일부 소극 분자들은 청년들의 이 대담한 발기를 하나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웃었다. 그들은 세멘트 무게까지 합치여 27 톤의 중량을 가진 화물 차량이 장차 잉크라잉 선로의 오목진 곳에 놓이게 될 나무 다리를 통과 못 한다는 것이다. 허나 청년들은 기술자들을 찾아 다니며 력학적 계산을 다 해 놓고는 이런 소극적인 경향과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잉크라잉 선로도 부설되고 나무 다리도 놓였다.

드디여 시운전의 날이 왔다. 나무 다리의 견고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세멘트를 만재한 화물차 바곤이 잉크라잉 선로에 련결되였다.

산 우에서 권양기가 돌아 가자 차량에 매놓은 로뿌가 팽팽해졌다. 뒤'이어 화물차 바곤은 산으로 천천히 기여 올랐다. 사람들은 손에손에 땀을 쥐였다. 차는 나무 다리에 이르렀다. 교각 나무가 우쩍우쩍 소리를 내였다. 소극 분자들은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일이 잘 못 됐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중량 27 톤의 화물차 바곤은 드디여 나무 다리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웨쳤다.

보수주의자들은 청년들의 날로 발전하는 기술적 성장과 높은 열성을 타산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청년들은 언제나 침체와 정지를 모른다. 그들은 앞으로 배에다 실어 온 화물차 바곤을 하륙시키는 번거로움도 없이 제창 그 배 밑에다 차 바퀴를 달고 배 그 대로 산 꼭대기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이 얼마나 랑만적인 《공상》인가? 우리는 아직 배가 산으로 오른다는 말은 듣지 못 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기술적인 혁신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청춘의 대학》

혼합 직장의 원 동무는 자유주의가 몹시 심했다. 쩍하면 동무들과 다투막질도 하였고 주먹질도 하였다.

민청원 박 만길 동무는 기어코 그를 교양 개조하리라 마음 먹었다. 그는 원 동무와 같은 합숙 호실에서 침식하면서 담화도 해 주고 회상기도 읽어 주었다. 그가 권투를 즐긴다는 것을 알고 체육 써클에도 망라시켜 주었다. 그래도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왔다. 이럭저럭 석 달이 지난 후에야 원 동무는 박 만길 동무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였다.

《내게는 동생이 하나 있지.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자라고 있거던》

그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만은 몹시 걱정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는 곧 이 사실을 작업반 성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작업반원들은 직장에 제기하여 그에게 휴가를 주었다. 그리고 그가 로임을 망탕 써 저축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안 그들은 원 동무에게 로자도 푼푼하게 대 주면서 신신 당부하였다.

《꼭 이 번 길에 동생을 데려 오라구. 우리가 도와 줄테니 합숙에서 함께 지내게》

휴가가 끝날 무렵 원 동무는 정말로 동생을 데리고 왔다. 작업반원들은 두 형제간이 함께 살도록 합숙 주선도 해 주고 동생의 학교 전학 수속도 일일이 해 주었다. 서로 앞을 다투어 학습장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면서

제 동생처럼 보살펴 주었다.

그러면서 원 동무에게 타일렀다.

《이제부터 원 동무의 책임이 정말 중하오. 원 동무의 일거일동이 동생에게 큰 영향을 줄게요》

이 한 마디 말은 원 동무의 가슴을 크게 찔렀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머리를 수그리였다.

《만약 원 동무가 자기 동생의 앞길을 그르친다면 왜놈들의 등'살에 일찍 돌아 가신 동무의 부모님들도 지하에서 몹시 원망할 게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오.》

원 동무는 끝내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었다. 불보다도 뜨거운 동지들의 참된 사랑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새 생활의 길에 들어 섰으며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성장하였다.

건설장에서는 이렇게 날마다 자연도 달라져 갔고 사람들도 달라져 갔다. 락후 분자는 선진 분자로, 소극 분자는 적극 분자로 되였다. 이를테면 건설장은 청년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공산주의 수양의 학교로 되였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훌륭한 도덕적 품성이 발현되였다.

지난 해 8월 발전소 건설을 담당한 10 건설 트레스트에서 있은 일이다. 철판로의 콩크리트 타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철판로를 순회하려고 슈트 우로 기여 올라 가던 민청원 김 재일 동무는 그만 뜻 밖의 일에 정신이 아찔하였다. 슈트의 한쪽 모서리가 파괴되여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철판로 꼭대기에서 담아 붓는 혼합물은 420 메터의 구간을 단 4 초 동안에 떨어진다. 만일 파괴된 슈트를 그 대로 둔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위험하다. 그런데 우에서는 방금 혼합물을 담아 붓고 있지 않는가? 미처 손 쓸 새도 없었다.

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 그는 슈트를 그러안고 가슴으로 뚫어진 구멍을 막았다…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혼합물이 다 흘러 내린 후에야 피투성이 된 가슴을 그러안은 슈트에서 뗐다. 철알 같이 떨어지는 혼합물을 가슴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한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깊은 밤 그가 잠'결에 신음 소리를 내기에 옆에 동무들이 가슴을 헤쳐 보고서야 그의 부상을 알았다. 동무들은 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분초를 다투는 전투 마당을 리탈하기에는 자기의 량심이 허락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매한 사상인가!

청년들은 정치 도덕적으로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성장해 갔다.

제대 군인 리 재호 동무는 몇 해 전까지 평범한 로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발전소 건설장에 온 후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작업반장으로 직장장으로 발전해 갔다. 현재 그가 관리 운영하는 건설 직장의 12 대의 기대 중 11 대가 《붉은 기대》 칭호를 쟁취하였다. 그는 유능한 기업 관리 일'군으로 되였으며 이른바 《발전소 건설 대학》의 《졸업증》을 받았다.

벌써 여기에서는 300 여 명의 민청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에 입당하였다. 150여 명의 기수, 전문가들이 새로 배출되였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발전소라는 것을 교과서에서나 보던 동무들이 이제는 타입, 운전, 착암 수리 등 5~6 종의 다기능을 소유한 건설의 능수로 되였다.

발전소 건설장—이는 그야말로 《청춘의 대학》인 것이다.

며칠 어간에 거쳐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낀 기자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 높이 웨치고 싶었다.

—사람들이여! 투쟁과 랑만, 영웅들의 참된 서사시를 읽으려거던 여기 청년들의 건설장에 오라—고…

그리고 또한 기자의 눈 앞에는 이제 며칠 후 언제의 가배수로가 밀폐되면 새로 생길 창창한 《바다》와 줄줄이 뻗어 간 은백색 고압선들이 잇닿은 곳마다에서 흘러 넘칠 인민들의 웃음이며 폭포처럼 쏟아질 강철과 비날론들이 완연하게 떠올랐다.

본사 기자 한 희만



한 민청원의 성실성

황해북도 연탄군 성산 협동 농장 민청원 리 연봉 동무에 대한 이야기

이 일 저 일 가림이 없이…

1960년은 연봉 동무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이 해 그는 성산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디디였던 것이다.

연봉 동무는 졸업 후 당의 부름 따라 서슴없이 농촌에로 진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지금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 있는 우리 농촌은 하루가 새롭게 지식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로 진출하는 것이 마땅히 졸업생으로서 할 일이며 또 혁명의 요구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는 자기가 택한 길이 백 번도 더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리하여 졸업장을 받아 쥔 날로 연봉 동무는 고향 마을의 협동 농장으로 달려 갔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농촌에 나온 연봉 동무는 모든 힘을 농사'일에 바쳤다. 며칠이 지나자 말랑말랑하던 그의 손'바닥은 부르트고 괏괏해졌으며 몸은 몹시 피로하였다. 그렇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뀌워짐에 따라 일은 차츰 흥겨워 갔고 농촌에서 일하는 자랑과 보람이 가슴에 절절히 안기여 왔다.

연봉 동무는 그 어떤 일을 시켜도 낯을 붉히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진'일 마른 일 가릴 것 없이 자기에게 맡겨지기만 하면 해 제꼈다.

그런데 그가 농산 작업반에서 한창 농사'일에 재미를 붙인 때였었다.

어느 날 리 당 위원장이 그를 불러 이런 말을 하였다.

《지금 우리 유치원에는 교양원이 없소. 연봉 동무가 이 일을 좀 맡아 주어야 하겠소.》

《네 교양원을요?》

연봉 동무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위원장을 쳐다보았다. 위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어째, 마음에 안 드오? 50여 명의 어린이들을 잘 돌보는 일은 우리 농장의 녀성 로력들이 작업에 안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요. 더우기 연봉이 같이 지식 있는 동무들이 그 애들을 훌륭히 맡아 길러야 하오. 내 생각에는 연봉 동무가 기중 적임일 것 같소.》

그 날 밤 연봉이는 잠을 이루지 못 했다.

(그런 일이사 아주머니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과연 내가 교양원 일이나 하려고 농촌에 나왔던가? 동무들이 무엇이라고 할가?)

이렇게 밤새 모대기던 연봉 동무는 생각하였다.

(아니다. 당이 시키는 일에서 흥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엄숙한 혁명 과업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어떻게 혁명하는 사람이 이 일 저 일을 가릴 수 있겠는가!)

유치원의 시설은 아직 불비하였다. 책상도, 걸상도 구해 와야 했고 풍금과 부족되는 완구도 사다 놓아야 했다. 천정과 벽에 도배도 하고 방'바닥을 바르기도 해야 했다.

연봉 동무는 교양원으로 배치되는 날로 손 발을 걷고 나섰다.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와 련계를 맺고 부족되거나 없는 모든 비품들을 근방의 상점에 돌아 다니면서 수주일 사이에 마련해 놓았다. 자신이 직접 도배도 하고 방'바닥도 발랐다. 물론 일은 힘에 부치였다. 특히 세멘트로 방'바닥을 바르는 일 같은 것은 기술 로력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한창 여름철이여서 협동 농장의 로력은 긴장되여 있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한 몸을 두 몸으로 갈라도 시원치 않을 때에 농장원들의 손을 빌 것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하자!)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밤을 새워 가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 하나 해 제꼈다. 연봉 동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원은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알뜰히 꾸리여졌다.

그는 온갖 열성과 사랑을 원아들에게 담아 부었다. 아직도 나어린 처녀가 50여 명 철부지 어린것들을 맡아 기르기란 결코 수월치 않았다. 어린것들이 울기나 해도 속을 썩였고 간혹 싸움질을 해도 속이 탔다. 어떤 때는 너무도 애가 타서 울고 싶은 때도 많았다. 그러나 연봉 동무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였다.

(문제는 아직도 나의 사랑이 부족한 탓이야. 어떻게 이 순한 애들이 꼭 같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애들을 키워 나가자!)

그래서 연봉 동무는 때로는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교육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연설을 읽으며 밤을 밝히기도 하였고 때로는 공청원 리 순희 동지의 회상기를 읽으면서 그가 어린 아동단원들을 어떻게 교양했는가를 연구도 했다.

원아들의 오침 시간에는 그들의 양말, 신발도 빨아 주었고 비'바람이 사나울 때면 먼 곳 아이들을 업어다가 주었다. 이렇게 되자 아이들은 점점 《우리 선생님! 선생님!》하며 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그럴 때면 연봉이는 온갖 피로도 잊고 생활에서 더 없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였다.

이렇게 연봉 동무는 유치원을 잘 꾸리고 원아들을 잘 교양하여 가장 락후하던 유치원을 군'적으로 모범 유치원으로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연봉 동무는 농사'일까지 도와 나섰던 것이다.

작년 가을 어지돈 관개의 물을 끌기 위한 굴착 공사와 작답 작업이 한창인 때였다. 공사장에는 청년 돌격대원들이 파견되였다. 낮에 밤을 이어 작업장은 들끓어 번졌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작업장에 오들진 몸매의 처녀가 나타났다. 연봉 동무였다. 그는 하루의 교양원 사업을 끝마치고는 이렇게 공사장에 달

려 나와 일을 도와 나선 것이다. 아무리 동무들이 말려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뛰여 다녔다.

《동무들, 생각해 보라요. 어떻게 제 고향에 물을 끌어 들이는 일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말구 함께 합시다.》

그는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연봉 동무의 이러한 고귀한 품성은 그의 동무들을 한층 더 고무하여 주었다.

조직의 위임

연봉 동무는 그것이 조직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어떤 혁명 과업이든지 제때에 해 내고야 마는 강의한 의지를 가진 처녀이다.

지난 봄 파종 때 있은 일이다. 이 때 작업반에서는 옥수수 파종을 4월 25일까지 끝낼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3 개의 파종 분조가 조직되였다. 이 때 민청 단체에서는 다시 농산 작업반에서 일하게 된 연봉 동무에게 제 1 분조 내 민청원들과의 사업을 위임하였다.

1 분조의 옥수수 파종 면적은 21 정보였다. 이것을 4월 25일까지 끝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게 굴었다. 비가 내렸다 개였다 하면서 일에 여간 지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4월 25일까지 옥수수 파종을 끝내기는 다 틀렸다고 락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곤난한 형편에서도 연봉 동무는 결코 락심하지 않았다. 밭머리에서는 민청원들을 고무하는 또릿또릿한 그의 목소리가 언제나 울리군 하였다.

《그렇다고 옥수수 파종 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만일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파종 적기를 놓쳐서 옥수수의 결실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모내기를 비롯한 다른 영농 사업도 그 만큼 미루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의 분조원들도 동감이라는듯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제 기일 내로 파종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밤 늦도록 연구하였다.

연봉 동무는 어느 날 하루의 작업 정형을 세밀히 살펴 보았다. 확실히 작업에는 빈틈이 있었다. 8 명이 한 조가 되여 옥수수를 파종하는데 그 작업 공정은 옥수수를 심을 구덩이를 파는 일을 비롯해서 5 개 공정이였다. 이 매 공정에 로력을 알맞게 배치하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줄곧 일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작업 도중 도간도간 쉴 짬이 생기는 것이였다. 이는 주로 두 사람이 한 공정에서 일하는 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군 하였다.

그 날 저녁 집에 돌아 온 연봉 동무는 작업에서 빈틈을 없애고 그 능률을 더욱 높일 방도를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도 궁리해 보고 저렇게도 궁리해 보는 과정에 옥수수를 심을 구덩이를 파는 작업 공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명씩 배치되여 일할 수 있다는 타산이 떠올랐다. 그리고 종전에는 화학 비료와 자급 비료를 각각 따로 주었는데 이를 혼합해서 준다면 한 계단의 작업 공정을 단축하면서도 한 사람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냈다. 이렇게 되면 1 개의 옥수수 파종 조가 8 명이였던 것을 5 명으로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남는 로력을 가지고는 옥수수 파종 조를 더 조직할 수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 연봉 동무는 포전에 나가는 길로 1 분조원들과 토의하고 자기의 착안을 실천에 옮겨 보았다. 예상하였던 대로 일은 잘 되였다.

하루의 파종 실적은 계획에 비하여 150~200% 까지 제고되였다. 이에 따라 옥수수 파종을 계획 대로 할 수 있는 전망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다고 작업 도중에는 또 하나의 난처한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소들이 굳은 땅을 갈아 엎노라고 며칠 간 애쓰더니만 맥을 쓰지 못하는 것이였다. 밭갈이가 파종에 앞서지 못 할 우려가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근심하였다. 연봉 동무는 소를 관리하는 아바이에게로 달려 갔다.

《아바이, 소가 맥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콩을 많이 삶아 멕인단다. 그런데 콩도 좋지만 요새 강변에 돋아 나는 버들순과 개구리가 제일인데 원 손이 돌아 가야지…》

소를 관리하는 아바이는 걱정이 서인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연봉 동무는 그 길로 돌아 섰다. 그는 이 날 휴식 시간에 강'가에 나가서 파릇파릇 돋아 나는 버들순을 손으로 한 아름 뜯어 다가 먹였다. 하루의 일이 끝난 저녁에는 개울에 나가서 개구리잡이도 하였다.

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실은 전체 민청원들에게, 마을의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져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소들은 원기를 회복하였고 그 후 농산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옥수수 파종이 제 기일 내에 제일 선참으로 끝난 것도 리 연봉 동무가 담당한 조였다.

× ×

어느 날 리 연봉 동무의 로동당 입당 보증 추천을 토의하는 민청 회의가 포전에서 진행되였다.

《동무들! 나는 초중을 졸업한 후 우리 농촌에 진출하여 계속 우수한 모범을 보인 리 연봉 동무에게 입당 보증을 줄 데 대하여 군 민청에 추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 민청원이 이렇게 제기하자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이 날 리 연봉 동무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영예로 고동쳤다. 연봉 동무는 감격과 흥분에 못'이겨 자리에서 일어 나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저 조직의 위임을 집행하였을 뿐이예요. 이것은 민청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나에 대해서 분에 넘친 평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 영광의 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이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당과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치는 격정에 떨리였다.

오늘도 그는 이 영예를 간직하고 알곡 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사 기자 김 학일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수립된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 (1)

김 홍 성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 혁명 수행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한다. 전략 전술이 어떻게 수립되였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다.

전략이란 일정한 혁명 단계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주되는 공격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며 혁명의 모든 력량을 로동 계급의 주위에 집결하고 력량을 옳게 배치하며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총괄적 계획을 말한다. 즉 전략은 일정한 혁명 단계에 있어서 어느 계급을 무찌르며 어느 계급을 고립시키며 로동 계급이 어느 계급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규정하고 그를 위한 원칙적인 기본 과업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규정된 전략은 일정한 혁명 단계의 전 기간 내에는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전술이란 일정한 혁명 단계의 기간 내에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조직 형태들을 결정하며 그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술은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혁명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바뀔 수 있으며 항상 전략에 복종한다.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전략 전술은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규정하며 투쟁 방법과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 세우고 있다.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처음으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지도된 것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령도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이다.

1930 년대 이전 시기 우리 나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인민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높고 전투성이 완강하였으나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소유하지 못 하였음으로 하여 일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형편과 계급적 호상 관계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작성하시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조선 인민의 흉악한 원쑤인 일제와의 간고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1

전략 전술에서 기본을 이루는 문제의 하나는 주되는 공격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는 일제 통치 하의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과 계급들의 제 관계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 인민의 주되는 공격 대상을 일제와 그 주구들인 반동적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하시였다.

당시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였고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서로 복잡하게 엉키여 있었다.

즉 조선 인민과 일제와의 모순,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의 모순, 민족 자본가를 비롯한 중간 세력들과 일제 및 그 주구들과의 모순, 로동 계급과 민족 자본가와의 모순 등이 그것이였다. 이러한 모순들 중에서 기본 모순은 조선 인민과 일제 및 그 주구들과의 모순이였다.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이 기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선차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고 조선 인민을 야수적으로 가혹하게 억압 착취 략탈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동적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게 의거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적극 비호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일제를 구축함으로써만 국내의 반동 계급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를 격멸할 수 있었으며 기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의 자주 독립과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을 우선 반제국주의적 민족 해방 혁명이며 반봉건 민주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 대렬 내에 잠입한 좌경 기회주의 분자들은 주되는 공격 대상과 부차적인 공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 한 데로부터 당면한 혁명 단계를 뛰여 넘어 즉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착취 계급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좌경 분자들은 계급적 해방의 필수적 전제인 민족 혁명의 과업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배치되는 민족주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조선 독립》의 구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좌경적 견해를 비판 폭로하시면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반제 민족 해방 혁명 과업을 자기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이 로선은 반제 투쟁 로선으로서 조선 인민

들에게 일제 반혁명 세력을 승리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 주었으며 조선의 모든 반일 애국 력량을 남김 없이 동원시킬 수 있게 하였다.

2

혁명의 전략 전술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되는 공격 대상의 선정과 함께 혁명의 모든 력량을 옳게 배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혁명에서 공격 대상을 정확히 설정했다 하여도 그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 력량을 옳게 배치하지 않고 옳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러한 성과도 달성하지 못 하는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의 혁명 력량 배치 계획에서 기본 사상을 이루는 것은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확립하며 우리 혁명의 기본 력량인 로농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반일 력량을 하나의 혁명 세력으로 묶어 세울 데 대한 로선이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때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이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으로 된다는 데로부터 이 혁명을 주로 부르죠아지가 령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급 로선을 포기하고 부르죠아지에게 투항하는 데로 나갔다. 한편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동맹자들과의 단결을 파괴하고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부인함으로써 로동 계급을 혼자 싸우게 하며 결국은 로농 동맹과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거부하는 데로 떨어졌다. 이 두 가지 편향들은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편향들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완전히 폭로 분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서 령도자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만이 될 수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1920 년대에 발생하여 계급으로 형성된 력사가 비교적 짧았으나 그 초기부터 그 어느 계급보다 가장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족 자본가는 그러한 계급으로 될 수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민족 산업의 발전을 억제 당한 우리 나라 민족 자본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히 미약하였으며 자립적 세력을 이루지 못 하였으며 로동 계급과 일제 간의 사이에서 심히 동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반일 사상과 반일 투쟁의 경험에 있어서 민족 자본가들보다 현저히 앞서고 있었으며 이미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서 가장 철저한 계급은 로동 계급이였으며 로동 계급만이 령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될 수 있는 계급은 전체 인구의 80 %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였다. 농민들은 일제 통치 하에서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로부터 이중 삼중의 가혹한 략탈과 착취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 처지도 로동자들과 같이 매우 비참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 인구의 80 %는 빈농, 고농이였다.

농민들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실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그와 동맹함으로써만 일제와 봉건적 착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농민 대중을 혁명 투쟁에 인입하며 농민과 동맹하는 길만이 로동 계급의 확고한 령도를 실현하며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로동 계급의 령도권과 로농 동맹의 사상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로동 계급은 무장 투쟁을 통하여 자체 혁명 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투쟁 성과와 견결성, 희생성으로써 령도 계급으로서의 위력과 위신을 제고시키였으며 혁명 투쟁 속에서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각 계층 인민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킬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계급의 령도권과 로농 동맹의 실현은 일제의 파쑈적 탄압이 심한 조건 하에서 주권도 없이 15여 성상의 장구한 기간 무장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이였다.

× ×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혁명 력량의 배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일제와 조선 인민 간의 민족적 모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모든 반일 력량을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의 주위에 묶어 세울 데 대한 통일 전선 방침이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규정된 이 방침은《조선 민족은 당파 (혁명 단체) 종교, 계급 (무산, 자산 계급) 지방별, 성별, 년령을 불문하고 무조건 대대적으로 단결 련합해서 공동 일치하게 일어나 우리 민족의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를 조선에서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 민족의 자유 획득에 노력할》데 대한 로선이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방침은 비록 일시적이고 불견고하더라도 로동 계급과 동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동맹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혁명 대렬내에 잠입한 좌경 분자들과 종파 분자들은 주되는 적인 일제와의 투쟁에 모든 력량을 집중할 대신에 동맹하여야 할 세력에 대하여 배척하는 데로 나갔다. 이들은 적 통치 지역 내 인민들의 절대다수는 반동이거나 《량면파》군중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하였으며 항일 유격대와 반일 부대와의 사이에도 대립을 조성시키려고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의 첫날부터 좌경 분자들과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광범한 반일 력량을 통일 전선에 집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36년 5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였

다. 조국 광복회는 일제의 타도, 조선의 독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전 민족이 총 동원하여》 반일 전선에 참가할 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벗과 적을 명백히 구분하였다. 적 아는 오직 그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려는가 또는 일제와 결탁하려 하는가의 단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서만 구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인 자본가를 예속 자본가와 민족 자본가로 명백히 구분하고 민족 자본가의 동요성, 취약성을 견제하면서 그의 반일 감정을 리용하여 그를 대담하게 통일 전선에 결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부대, 독립군들과의 통일 전선 형성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당시 조선 인민의 전반적 반일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항일 무장 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 전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반일 부대는 상당한 수의 력량과 무장을 가지고 있였고 그 병사 대중의 절대 다수가 농민을 위시한 근로 인민들이였으며 그들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소부르죠아 대중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부대의 기본 계급 출신인 병사 대중들과의 하층 통일을 강화하면서 대담하게 그 상층과도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일 부대와의 통일 전선 형성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김 일성 동지는 천도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반일 감정을 리용하여 반일 통일 전선에 인입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학생, 인테리, 도시 소자산 계급, 민족 자본가, 종교인, 적 기관에 복무하는 민족적 량심을 가진 계층, 적 군대에 복무하는 하층 군중 등 가능한 모든 계층들을 전취하여 반일 통일 전선에 집결시킬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광범한 반일 혁명 력량을 묶어 세울 수 있는 조건은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을 달성하려는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및 민족 부르죠아지 등 광범한 사회 계층들의 리해 관계가 공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과 그가 지도하는 로동 계급의 령도권과 로농 동맹이 확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적 혁명 력량의 핵심이 있음으로 하여 비록 믿음성이 적으며 동요성이 심한 계급, 계층들까지도 묶어 세워 능히 이끌고 나갈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은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 반일 력량을 한데 묶어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 반제 반봉건 혁명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게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살인장군 워커를 족쳤다

위 연환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 부대가 적후 활동 임무를 받고 강원도 평강군 유지면 주병리 갈개를 출발하여 남으로 행군을 시작한 것은 1950년 11월 6일이였다. 때는 초겨울이라 하지만 동해에서 불어 오는 차거운 해풍이 아직도 여름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사정 없이 휘갈기였다.

그러나 남으로 걸음을 옮기는 전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커다란 불'덩이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국에 닥쳐 온 준엄한 시련, 부모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최후의 판가리 싸움에로 부른 당과 수령의 호소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게 하였다. 비록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였으나 복수의 시퍼런 불'길이 타올랐다.

적의 종심을 뚫고 놈들의 후방 깊이 들어 가는 이 어려운 행군의 나날에 공병 소대장 최 종운 동무는 항상 전사들의 선두에 섰다. 그는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두려움을 몰랐고 항상 대담하고 용감하였다. 지금도 그의 모습은 나의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11월 10일 우리는 금화 부근에 이르렀다. 산'등성이에서 굽어 보는 금화 시가는 을씨년스러웠다. 별로 사람의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리에는 개조차 짖지 않았다.

최 종운 동무에게 시내 수색 임무가 부여되였다. 이 임무 수행에서 그는 시내에 도사리고 있던 악질 《치안대》 놈들을 처단하고 2 명을 포로했으며 적들이 가지고 있던 모포, 인조천 등을 비롯한 막대한 물품을 로획하였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파동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되였다.

그 후에도 최 종운 동무는 계속 적후에서 도로 차단, 지뢰 매설 등 어려운 임무를 담당 수행하였다.

1950년 12월 2일 그는 금화로부터 서울로 통하는 도로를 양문리 전방 800 메터 지점에서 파괴할 임무를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렇다할 공병 기재도 없었고 폭약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 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도로를 끊어 놓지 못한다면 북반부에 기여 들어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략탈하고 수 많은 형제들을 학살한 살인귀 미제 원수들을 살려 보낼 수 있지 않는가…

한 놈의 원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놈들의 퇴로를 끊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최 종운 동무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약 5 키로 그람 가량 되는 폭약을 꺼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도로를 끊을 수 없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빛이 떠돌았다. 이 때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도로 주변의 지형을 살펴 보던 최 종운 동무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큰 바위 밑으로 달려 가는 것이였다. 그는 집채만한 바위를 도로에 가로 놓을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바위 밑을 깊숙히 파고 그 속에 폭약을 다져 넣고 심지에 불을 달았다. 잠시 후 바위는 여러 동강으로 쪼개져 굴러 내리면서 도로의 한복판에 가로 세로 놓여졌다. 이리하여 최 종운 동무는 불과 수 키로 그람의 폭약으로 넓은 도로를 차단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창발성을 발휘하여 전투 임무를 어김 없이 수행하군 하였다.

적후 투쟁은 계속되였다.

1950년 12월 13일 최 종운 동무가 속한 소대는 또다시 새로운 전투 임무를 받았다. 그들은 이틀밤의 강행군으로 강원도 련천 부근까지 도착하였다. 이 때 련천 시내에는 적 1개 련대의 병력이 집결되여 있었다.

부대 지휘부에서는 이 놈들을 포위 섬멸할 결심을 채택하였다. 이 때 우리 대대 앞에는 두 개 방향의 도로를 차단할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련천에서 시변리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와 련천에서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이였다.

아군 부대가 적들을 공격하는 경우에 놈들은 서울 방향으로 퇴각할 가능성이 풍부하였다. 이러한 적들의 기도를 정확히 간파한 대대에서는 련천에서 서울로 통하는 도로 차단 임무를 최 종운 동무에게 주었다.

추위가 뼈'속으로 스며 드는 밤이였다. 6명의 대원을 인솔한 최 종운 동무는 적 후방 전곡으로 가는 교차점을 차지하였다. 그들에게는 반전차 지뢰 8개 밖에 없었다.

이 지뢰를 어떻게 매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 날 밤 자기 위치에 각각 매복하고 있는데 군수 물자를 실은 적 자동차 대렬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이였다. 적들은 퇴각을 서둘고 있었다. 그러나 적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최 종운 동무는 괴뢰군 장교 외투를 입고 슬금슬금 자동차 대렬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괴뢰군 놈들이 자동차를 한 곳에 집결시키고 무엇을 대기하고 있는지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그 대로 접근하였다. 이 때 별안간 한 놈이 뛰여 나오더니 《누구냐?》 하고 소리질렀다.

《내다. 이 놈아 왜 떠들어?》

최 종운 동무는 그 놈의 멱살을 틀어 쥐고 눈 구뎅이 속에 처박아 넣었다.

《야 이자식아, 눈깔은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 놓은 줄 아느냐? 자기 상관도 몰라 보고…》

이쯤되자 웅성거리던 놈들은 찍 소리 못 하고 잠잠해졌다. 그는 괴뢰군 《장교》의 《위풍》을 뽐내며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샅샅이 료해하였다.

그는 더 큰 적을 족치기 위하여 놈들을 습격하지 않고 속히 돌아 와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지나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 지뢰를 매설하게 된다면 땅을 파헤친 자리가 나서 적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던 그는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서 다져 놓은 자리는 그 대로 두고 그 옆으로 구멍을 뚫고 지뢰를 매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눈으로 위장을 잘 한 다음 도로 량 옆에 은밀히 매복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련천을 포위한 아군의 공격 개시 시간이 닥쳐 왔다. 4시 정각! 한 방의 신호총 소리와 함께 공격 개시를 알리는 82밀리 박격포의 요란한 포성이 고요한 새벽 하늘을 흔들어 놓았다. 삽시간에 련천 시가는 아군의 총포 사격으로 뒤범벅이 되였다.

불'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 오르고 그 사이로 개미떼처럼 흩어져 도망치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이것을 바라 보고 있는 최 종운 동무의 머리에는 불현듯 출발 전에 자기에게 일러 준 지휘관의 다음과 같은 말이 상기되였다. 《종운 동무! 련천에는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란 놈이 나와 있소. 이 놈은 우리가 불의에 들이 치기만 하면 맨 먼저 뺑소니를 칠 게요. 그 놈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처단해 버려야 하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관단총의 총가목을 튼튼히 틀어 쥐였다.

워커—이 놈은 태평양을 건너 온 인간 백정이였다. 그 놈은 한 명의 조선 애국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의 죄 없는 인민을 죽여도 무방하니 되도록 많은 조선 사람을 살해해야 한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었고 어린애들이나 녀자들 앞에서 미국 병정의 손목이 떨려서는 안 된다고 넋두리하던 살인 강도였다.

그 놈을 꼭 잡아 치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더욱 높뛰기만 하였다.

련천에서의 전투는 더욱 고조되여 가는듯 총소리는 더욱 긴박하게 울려 왔다. 그럴수록 최 종운 동무는 서울로 가는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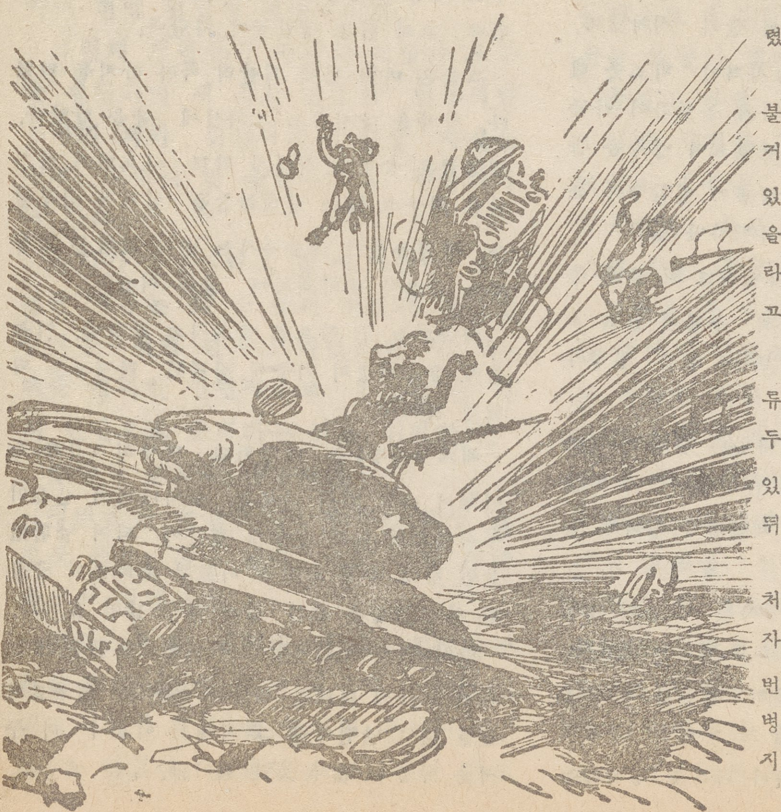
아니나 다를가! 예견한 대로 자동차의 긴 대렬이 서울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거리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계속 감시하면서 바라 보니 대렬의 선두에는 적 중형 전차 1대가 척후병처럼 앞서고 그 뒤에 승용차가 뒤따랐고 련'이어 8대의 화물 자동차가 꼬리를 물고 있었다.

원쑤를 노려 보던 최 종운 동무는 대원들과 함께 사격 준비를 하고 대기하였다. 놈들의 서렬은 점점 가까이 다가 왔다.

적 전차와 자동차의 발동 소리가 추위에 얼어든 산과 들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다. 각일각 적들은 지뢰 매설 구역으로 죄여 들었다.

드디여 선두 전차와 뒤에 바싹 붙어선 두 대의 승용차가 지뢰 매설 구역에 들어 서자 《꽝꽝!》 지뢰 터지는 폭음이 지동치듯 울렸다.



순간 적 승용차와 전차에 불'길이 확 달렸다. 수류탄을 거머쥐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은 최 종운 동무는 소대원들을 향하여 《한 놈도 놓치지 말라! 원쑤에게 죽음을 주라!》고 웨치며 달려 나갔다.

그를 따라 6명의 대원이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양키 장교놈들 속으로 뛰여 들었다.

불'속에 기여 드는 벌레떼처럼 꼬리를 물고 달려 오던 자동차들이 연방 불'길에 타번지고 간신히 뛰여 나온 적 병들도 한 놈, 두 놈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 종운 동무와 그의 전우

들은 눈앞에 얼른거리는 20여 명의 양캐 장교 놈의 낯짝에 복수의 명중탄을 안겼다.

—한 놈도 남김 없이 소멸해 버려야 한다. 그 속에는 워커란 놈도 끼여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최 종운 동무와 그의 전우들은 마지막 한 놈까지 무자비하게 족쳐댔다. 그리하여 이 전투에서 최 종운 동무 소속 소대 전투원들은 도망치려던 적 전차 1 대와 8 대의 자동차를 불사르고 80여 명의 양캐놈들을 속시원히 소멸해 버렸다.

그 속에는 미 제 8군 사령관이였던 워커란 놈도 들어 있었다.

소대 전투원들은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던 워커란 놈을 저승'길로 보낸 것이 무척 기뻐서 환성을 올렸다.

자기네의 사령관이 나자빠지자 악에 바친 놈들은 더욱 미친 듯이 달려 들기 시작했다.

서울 방향에서 적들의 포사격이 비오듯 했다. 그리고 놈들은 비행대까지 동원하여 아군 부대를 수색하느라고 야단쳤으며 맹폭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적들의 발광이 심할수록 놈들에게 더 무서운 타격을 가해야만 했다.

적들의 발악이 심한 환경에서도 최 종운 동무 소속 소대원들 앞에는 적 후방에 있는 교량들을 폭파할 데 대한 새로운 전투 임무가 제기되였다.

최 종운 동무는 7 명의 대원과 함께 반 전차 지뢰 6 개를 휴대하고 전곡에서 약 2 키로메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혜란교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였다.

중대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행동을 아군 1 개 중대가 화력으로 엄호해 주었다.

무사히 혜란교까지 은밀히 접근한 최 종운 동무는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주위를 유심히 살펴 보았다. 아니나 다를가 다리를 경비하는 4 명의 적병 놈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최 종운 동무는 대원들을 매복시키고 적들을 계속 감시하며 지형을 료해하였다. 날은 몹시도 추웠다. 금시 함박눈이라도 쏟아질듯 하늘은 호리멍텅했고 맵짠 바람이 오장으로 스며 들었다.

강추위에 발끝까지 얼어든 적병들은 주변에 있는 인민들의 벼'무지를 헐어다 불을 피우고 있었다. 적병놈들은 불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불'길이 사라지자 한 놈이 일어서서 또 한 무지의 벼'단을 가져다가 불'더미우에 올려 놓았다. 물'기 먹은 벼'짚은 쉽사리 타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적병놈들은 서로 엉덩이를 추켜 들고 불어 대기 시작했다. 연기가 피여 오르면서 주위를 감싸 버렸다.

이 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최 종운 동무는 적병의 눈을 피해 교량으로 은밀히 접근했다. 그의 뒤를 대원들이 따랐다.

그들은 다리 밑에 재빨리 폭파 장치를 하였다. 장약을 장진하고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대원들은 급히 다리에서 피해 나오면서 아직 불을 피우고 있는 적병놈들을 일격에 까부셨다. 적병놈들이 나자빠지는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혜란교는 두 쪽으로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미제 승냥이들의 기동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던 것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신화》는 이렇게 조국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산산이 부서졌으며 인간 살육에 혈안이 되여 날뛰던 살인 강도 두목 워커를 비롯한 펜타곤의 충실한 사냥'개들은 보기 좋게 녹아 났던 것이다.

만약 미제 살인귀들이 이러한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더러운 침략의 무기를 휘두르며 분별 없이 날뛴다면 그 때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산주의 수양 과 로 동

최 원종

청년 시절은 각 방면에 걸쳐 부단히 배우고 수양하는 시절이다.

청년 시절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가지며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고상한 도덕 품성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년들은 조국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군이며 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며 새 사회 건설의 믿음직한 투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자신을 정신, 도덕적 및 육체적으로 수양하여야 한다.

우리가 수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됨을 배우는 것 즉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단련하며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양의 방도는 다양하다.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수양은 학습 및 조직 생활, 사상 단련 특히 실천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과거 봉건 사회의 량반 선비라는 자들은 《벼슬》을 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수양》을 하였다. 그들이 《수양》하는 방도는 산 속에 들어 가서 《글》을 읽고 《도》를 닦는 것이였다.

그러나 인간의 수양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양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양인 공산주의 수양은 실천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실천 투쟁은 크게 생산 투쟁과 계급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투쟁에서는 로동이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다.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생산 로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신심을 단련하며 선진 기술을 습득하며 사상 도덕적으로 더욱 장성시켜 주는 훌륭한 공산주의 학교이다.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며 인간은 로동 속에서 단련된다. 로동 속에서 단련된 사람은 마치 비'바람 사납게 휘몰아치는 높은 언덕에 뿌리박은 락락장송과도 같이 굳건하다.

맑스는 일찌기 불휴의 명작 《자본론》에서 로동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사회적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교육에서는 생산 로동과 교육 및 체육을 결합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레닌도 젊은 세대의 학습과 생산적 로동을 결합함이 없이는 미래 사회의 리상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적 수양에서 로동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은 우리에게 부유한 새 생활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고 견실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로동 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동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될 수 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착취 계급들의 낡은 사상을 청산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근로 인민의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동은 청년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 투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로동은 우선 청년들의 사상 도덕적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사람들의 사상 도덕적 수양에서 로동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은 사람을 단련시키며 그에게 고귀한 품성을 배양하여 주며 그의 의식을 개조합니다.》

로동은 자연을 개조하며 인간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자연을 개조하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재부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인재의 진정한 단련은 실지 사업 과정에서, 난관과의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바로 어렵고 힘든 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는 불굴의 투지를 배양할 수 있으며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자기 힘으로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다른 어떤 계급이나 계층들보다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기질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생산 로동을 통한 투쟁 속에서 가장 많이 단련되였기 때문이다.

로동 과정은 또한 집단적 활동 과정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 수행하는 집단적 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문제 해결에서의 고도의 창발성, 오직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집단적 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동지애와 단결력, 조직성과 규률성,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풍부한 인간성이 배양된다. 특히 우리는 집단적 교양과 집단적 방조로 자기의 결함을 쉽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으며 자체 수양을 훨씬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낡은 사상 잔재를 개조할 수 있다. 과거 착취 계급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는 것을 《최대의 락》으로, 큰《자랑》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기생충과 같은 낡은 사상과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되고 있다.

청년들은 성실한 로동을 통해서 일하기를 싫어하며 부화 방탕하고 기생충과 같이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헌신 분투하는 새롭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로력으로 창조된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는 정신이 배양된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로동 과정을 통해서 로동 계급의 참다운 사상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체득하고 자신을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수양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은 사상과 도덕 품성의 단련 뿐만 아니라 지식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 지식은 실제 현실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책에 의해서 연구한 것도 실제 사회로 파고 들어 가서 거기에 적응시키며 이리하여 산 지식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는 때에라야만 진정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진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지식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변시키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전하여 왔다. 리론 자체도 언제나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현실 속에서 로동 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경우에 더 빨리, 더 쉽게, 더 흥미 있게 습득할 수 있으며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 대학생들과 공장 기술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있는 실례가 이를 훌륭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로동하는 사람들의 지식은 그들이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로동하며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 난다.

증기 기관을 처음 발명한 와트는 로동자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벼 랭상모와 목화 영양단지 가식법을 비롯한 많은 창의 고안들과 발명들도 직접 로동에 종사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창안이 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직접 기대 앞에서 기대를 다루며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더 잘 할 수 있겠는가를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면 매개 사람들이 각각 한 가지 각도,한 가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아 낸다 해도 한 사람이 그 모든 방도를 궁리해 낸것처럼 영리해지며 매 사람의 지식이 그만큼 풍부화되고 발전된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는 과정은 자신의 지'적 수양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 과정은 또한 배운 지식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못 한가를 판정하는 수단,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생동하고 산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써먹지 못 하는 사람을 항일 빨찌산들은 《글뒤지》라고 불렀었다. 이런 현상은 실천에서 유리되고 책상 머리에서 글귀를 외우는 데만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로동 과정은 리론을 발전시키며 풍부히 한다. 바로 과학적 리론은 실천과 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천수만가지의 새로운 문제들과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총화하는 과정에서 보충되고 풍부화되며 또 새로운 리론이 발생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경락 실태의 발견도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생산 로동은 또 사람들의 건전한 육체 발육과 체력을 단련시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맑스는 《각종 유리한 로동 또는 생산 활동이 어떻게 상이할지라도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어느 때나 인간 유기체의 기능이고 또 매개 이러한 기능은 그의 내용과 형식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본질상 인간 뇌수, 신경, 근육 감수기 등의 지출이다.》(자본론)라고 하였다. 생산 로동 과정에서 육체적 힘의 견인성이 발전하며 동작이 민활해지며 체력 뿐만 아니라 체격도 훌륭하게 발전한다. 규칙적으로 로동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언제나 기력이 왕성하며 생활을 무한히 즐길 수 있다.

생산 로동이 육체 발육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신 금단 선수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선반공으로서 일찍부터 단련되여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전문적 체육 훈련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발전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로동자들의 육체는 사무원들에 비하여 쩍 벌어진 앞가슴과 넓고 두터운 어깨와 힘이 용솟음치는 팔다리와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것은 로동에서 일상적으로 몸이 단련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 로동은 정신적 힘도 발전시키고 육체적 힘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 량자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로동은 실로 청년들의 공산주의 수양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는 자신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공산주의 수양의 훌륭한 학교인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자연을 개조하며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로동 과정은 사상을 개조하며 식견을 넓히고 체력을 단련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로동 속에서 로동 계급의 사상을 체득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선진 돌격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한갓 시나 글줄만 외울 뿐 실행이 없으면 팔구십 세를 산다 하더라도 결국 실속이 없고 그림자만 살아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덕무

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

박 수 영

조선 인민은 예로부터 풍부하고 훌륭한 모국어인 조선말을 쓰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지나 왔고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노래로 엮었으며 시로 읊었다.

조선말은 조선 인민의 력사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재부이다. 조선말은 영웅적 조선 인민의 언어이며 단일한 조선 민족의 모국어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로동과 생활 과정에서 조선말을 창조하였고 조선말로써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주고 받았다.

우리 말이 유구한 력사를 지나 오면서 조선 인민에게 유일한 교제의 수단으로 복무하여 온 것은 바로 우리 말의 자랑이며 우수한 점의 하나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2,500여 개의 언어 가운데서 한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 인민에게 수천년을 하루와 같이 쓰이여 온 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우리 말은 조선 인민과 함께 오랜 력사를 걸어 오면서 우리 말을 없애 버리며 더럽히려는 온갖 책동과 갖은 풍파를 이겨 냈다.

인민과 더불어 피여 난 우리 말은 세계의 어느 나라 언어에도 못지 않게 단어와 표현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그 어떠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라 할지라도 모두 우리 말로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각종 표현과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맞게 자유로이 골라 쓸 수 있다.

조선말의 단어와 표현의 풍부성은 사람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들을 간단히 추려서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하, 허허, 호호, 호호, 히히, 해해, 헤헤, 킥킥, 깔깔, 껄껄, 방실방실, 방긋방긋, 벙긋벙긋, 벙글벙글, 방싯방싯, 벙싯벙싯, 벙실벙실, 빙긋빙긋, 빙글빙글, 뱅긋뱅긋, 뱅글뱅글, 뺑긋뺑긋, 빵긋빵긋, 싱긋싱긋, 씽글씽글, 생긋생긋, 방긋방긋, 생글생글…등등》

우리 말이 얼마나 미세한 의미적 차이와 섬세한 감정적 색채에 이르기까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가는 색갈을 표시하는 단어들 만으로서도 잘 알 수 있다.

가령 붉은 색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의 농도 여하에 따라

붉으레, 붉다, 빨갛다, 붉으스레, 발기우리, 발그레, 새빨갛다, 뻘겋다, 발기죽죽…등 수십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분된 단어 및 표현의 풍부성은 다른 나라 말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우리 말에서만 독특하게 발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은 단어와 표현이 풍부하고 발달되여 있어서 인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기에 편리하고 자유롭다.

조선말은 단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새 단어를 만들어 내는 수'법이,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명확한 표현을 골라 쓰는 데 퍽 유리하다.

례를 들면 우리 말에는 맨손, 풋내기, 비도덕적, 짓밟다 등과 같이 접두사에 의하여 새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덮개, 가래, 엎치다, 인간적, 애국적 등과 같이 접미사에 의하여 새 단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또한 오각별, 밤낮, 논밭, 눈웃음, 굳세다

등과 같이 합성에 의한 단어 조성법.

맞→멋, 가죽→거죽, 머리→마리, 거짓→가짓, 미욱하다→매욱하다 등과 같이 어음이 바뀌여서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

떠→떠다, 가물→가물다, 웃다→웃음, 때때로, 정말로, 조차 등과 같이 한 품사로부터 다른 품사로 넘어 가면서 새 단어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단어 조성법들은 모두 우리 말을 풍부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언어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말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토가 아주 발달되여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토가 발달되여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가령 책을 읽는 표현에서도 읽고, 읽으며, 읽으면서, 읽는바, 읽거니와, 읽거나, 읽다가, 읽든가, 읽지마는, 읽으나, 읽으므로, 읽으니까, 읽어서 등과 같이 사상의 내용과 전달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말에는 계칭과 존칭도 매우 발달하였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년령 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한 높임 말을 적절하게 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례의 범절과 아름다운 도덕적 의리를 잘 표현한 것으로서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일이다.

이제 그 계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우리 말에는 다섯 가지의 계칭이 있다.

존대는 《위원장 동지, 이 번 창의 고안이 성공했습니다.》와 같이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자기보다 웃사람일 경우에 존경하는 말로써 쓰이며

하오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댔소.》와 같이 이야기 듣는 사람이 조금 웃사람인 경우에 높여서 쓰인다.

또한 하게는 《원식이, 나는 오늘 남포로 가겠네.》와 같이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자기와 대등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 친숙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쓰이며

해라는 《그 일은 내가 도와 주마.》와 같이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래'사람일 경우에 쓰인다.

반말은 《난 오늘 원혁이를 봤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극히 친밀한 경우에 쓰인다.

조선말에는 또한 화제에 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이 있다.

《김 선생은 어제 희천에 가셨습니다.》에서 《가시다》는 화제에 오른 김 선생을 높이는 말이다.

조선어의 또 하나의 우수성은 조선말에 알맞는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훈민정음은 1444년 정월 (양력)에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인 정 린지, 최 항, 박 팽년, 신 숙주, 성 삼문, 강 희안, 리 개, 리 선로 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우리 문'자는 모두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써 우리 말을 적기에 매우 편리한 과학적이고도 발달된 자모 문'자이며 인민들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간편한 글이다.

우리가 이런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은 온갖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투쟁으로 빛나는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발달의 길을 걸어 왔다.

우리 말과 글은 봉건 시기에 봉건 통치배들의 압제를 받아 왔다. 사대주의에 눈이 어두운 봉건 통치배들은 한문만을 숭상하고 우리 글을 천대하였으며 이런 관념으로부터 한문을 《참글》, 《진서》라고 하였고 훈민 정음을 《언문》, 《암클》 이라고 멸시하여 불렀다.

그러나 봉건 통치배들의 그 어떠한 탄압도 인민들로부터 우리 글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우리 글은 애국적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였다.

1910년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완전히 자기들의 예속 하에 얽어 매기 위하여 갖은 략탈과 억압을 감행하는 한편 우리 말과 글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모국어 교육을 방해하며 지어는 조선말과 글을 없애고 조선 사람의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일제의 이러한 식민지 우매화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의 민족적 자주성을 고수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새 시기를 열어 놓았다.

우리 말과 글의 참으로 자유로운 개화 발달은 해방 후에 이루어졌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 말과 글은 인민의 완전한 소유로 되였으며 보다 더 잘 다듬어진 말과 글로 활짝 꽃 피여났다.

오늘 우리 말과 글은 근로 대중의 알기 쉽고 쓰기 쉬운 인민적인 언어로 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문풍이 더욱 튼튼히 확립되여 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을 더 깊이 학습하며 그를 더 잘 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글에 대한 명인들의 말

사람의 심정을 입으로 발표하면 말이 되며 리를 붙이면 시가와 운문이 된다. 여러 나라 언어가 비록 같지 않으나 적어도 훌륭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써 리듬을 붙이게 된다면 모두 족히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과 통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유독 중국 한문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 시와 글은 자기 모국어를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배워 쓰고 있는데 설사 그것이 십분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다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입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간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긷는 부녀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를 우리의 속된 말이라 하여 상스럽다고 하지만 그 참됨과 거짓을 가지고 따진다면 소위 학사 대부들의 시가 운문 따위는 같이 이야기할 처지도 못 된다.

김 만 중

훈민 정음은… 그 글자 수는 많지 않으나 활용하는 방법은 주밀하다. 쓰기에 가장 편리하고 배우기에 가장 쉬워서 천원만어를 섭세하게 형용할 수 있으니 비록 부인네나 어린애들이라도 다 써서 말을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정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예전 성인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 한 것이요 온 천하에 없던 것이다. 여러 나라가 다 문자를 가지고 있으나… 다 황잡하고 법이 없다.

그런데 정음은 다만 우리 나라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히 온 천하 음성에 모범이 될 수 있다!

신 경 준

소리 글자라는 것은 그 말을 토대로 하여 그 말대로 적는 것인데 적어 놓은 글이 말과 같아야 정말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은 글이 말과 같지 않으면 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문은 우리 말을 사진 박은 것과도 비슷한데 적어 놓은 글이 우리 말과 같지 않으면 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시 경

28 자로 끝 없이 활용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도 요령 있으며 세밀하고도 체계가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 다 알 수 있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것이니 이로써 글을 풀면 그 뜻을 풀 수 있고…무엇이나 쓰지 못할 것이 없으며 어디를 가나 통하지 않을 데가 없다. 비록 바람 소리나 학의 웰침이나 닭의 울음이나 개의 짖음 같은 것이라도 모두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정 린 지

농산기수가 되기까지

초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주의 농촌의 보람찬 일터에서 일하면서 배워 3 년 동안에 농산 기수가 된 평남도 온천군 대령 협동 농장 민청원 김 명산 동무에 대한 이야기



시간 문제

1960년 8월, 온천군 귀성 중학교를 졸업한 명산이가 상급 학교에 가라는 부모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자기 고향—대령 협동 농장에 진출할 때 그의 결심은 컸다.

(당은 지금 지식 청년들을 농촌에로 부르고 있다. 나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 진출해서 일하면서 배워 기수, 기사가 되겠다. 그래 내 손으로 고향'벌을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우리라…)

그는 곧 안주 고등 농업 학교 통신학부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막상 농사'일에 달려 붙고 보니 너무나도 애로가 많았다.

이제 겨우 열 여섯 나이, 그것도 육체 로동에서 단련되지 못 한 몸인지라 일은 힘 들었다. 쉴참만 되면 아무 데나 펄썩 주저앉게 되였고 밤에는 책을 들기가 바쁘게 졸음이 몰려 들어 몇 줄 읽지도 못 하고 잠 들기가 일수였다. 그러다나니 자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등교를 몇 일 앞둔 어느 날 저녁, 한 학기 학습 정형을 총화해 보던 명산이는 그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재 학습은 말할 것도 없고 검열 해답서 하나 변변히 해 보내지 못했던 것이다. 명산이는 자기를 깊이 반성해 보기 시작하였다.

(모내기, 제초, 추수, 탈곡…또 민청 사업…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인가.

옛날 한 석봉이는 두꺼운 벼루'돌이 창이 나도록 글씨 련습을 하여 마침내 명필이 되였구, 더우기 항일 빨찌산들은 교리를 맞무는 그 간고한 전투의 여가에도 눈 우에 글을 써 가며 공부하지 않았던가, 아직은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 분들처럼 그렇게 공부하여야겠다…)

그는 학습 계획서도 새로 세웠고 벽에다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붙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평균 3 시간(여름) ~4 시간 30 분(겨울) 이상 시간을 쟁취하자. 그 날 계획은 그 날에 반드시 실행하자!》

명산이는 밤에는 열 두시가 넘도록 공부하고 새벽에는 작업에 나가기 전 시간을 리용하여 한 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렇지만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려면 남보다 잠도 덜 자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습관이 잘 붙지 않았다. 저녁 식사만 끝나면 자리에 눕고 싶었고 밤 열시만 지나면 자꾸 눈이 감겨졌다. 밤 공부에 습관을 붙이기까지 별별 수단을 다 썼다. 몰려 드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하여 찬물에 세수도 하고 재미 있는 소설도 읽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 보았다. 몇 달 동안이나 완강하게 노력한 결과 그는 밤 늦게까지도 능히 학습할 수 있게 되였다.

그는 점심, 저녁 시간에는 주로 교재 혹은 참고 서적들을 발췌하거나 수학 문제 풀이를 하였고 작업장으로 오갈 때나 쉴참 또는 공동 집합 장소에서 기다릴 때 생기는 토막 시간도 놓치지 않고 책이나 공식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하였다. 작업의 쉴참에도 어떤 동무들은 허리를 펴느라고 논'두렁에 앉아 한담을 하였지만 오직 명산이만은 한켠에 가서 책을 펴 들고 공부를 하였다.

《여, 명산이 이리 와서 좀 쉬라구, 소털처럼 하구 많은 날에 조금 쉰다고 큰'일 나겠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학자라도 되려나.》

그래도 명산이는 그런 롱담을 대범하게 웃어 넘기며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떤 때는 질통을 지고 책을 보며 다니다가 처녀들의 《꾸지람》도 들었다.

《아이참, 사람을 받아 넘기겠어요. 앞을 좀 찬찬히 보며 다니라요.》

처녀들은 이렇게 바스러지는 소리를 지르군 하였다.

이렇게 신고하면서도 자기의 하루 학습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1961년 2월에 명산이는 초급 단체 부위원장으로 피선되였다. 그러니 시간은 더욱 모자랐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이악하게 학습해 나갔다.

사실 초중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체로 학습하자니 삼각, 대수, 기하 등 수학 과목과 같은 것은 아무리 애써도 시간만 걸렸지 잘 터득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런 때면 아무리 깊은 밤에도 농장 내의 고중 졸업생들을 찾아가 배워 달라고 성화를 먹이였고 때로는 귀성 중학교 선생님들을 찾아 가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회의나 기타 일로 군 소재지에 가게 되면 반드시 고등 농업 학교에 찾아 가 학습에서 모를 것들을 해명 받군 하였으며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도서관을 통해 필요한 서적들을 구해 가지고 돌아 왔다.

한 번은 그가 군에 갔다가 새로 나온 책 한 권을 구해 가지고 돌아 오는데 소나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거리를 빠지는 길 모퉁이에서 동무를 만났다. 그는 명산이의 팔 소매를 붙잡고 날도 저물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가겠는가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렸다. 일순 명산이는 동요하였다.

(정말 어떻게 한다? 우비도 없는데…)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날 학습 과제가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자고 가면 학습 과제를 못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반적 학습 계획이 밀리게 된다. 아니다.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명산이는 동무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향해 떠났다. 본래 남달리 책을 아끼는 그는 책이 젖을세라 웃옷을 벗어 네다섯 겹으로 싸서 옆구리에 꽉 끼고는 달리기 시작하였다. 집에 돌아 왔을 때는 밤도 어지간히 깊었고 몸도 덜덜 떨렸다. 그렇건만 그는 저녁 술을 놓기 바쁘게 책에 달라 붙어 새벽 세시가 넘도록 기어코 그 날 학습 과제를 완수하였다.

명산이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학습 시간이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이악하고 완강하게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얻어 낼 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실속 있고 빠른 길

명산이는 단지 기수 자격을 위해서나 자기 개인 명예를 위해서 학습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기술 혁명 시대의 청년으로서 농장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고향 마을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학습하였다.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배운 지식이 산 지식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기에 힘썼다. 그는 학습 계획부터 봄철 종자를 키울 때는 《육종학》을, 곡식이 자랄 때는 《작물학》을, 비료를 줄 때에는 《토양 비료학》을, 해충을 구제할 시기에는 《식물 보호학》을 학습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세우고 실제 농산 작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공부하였다. 이것은 산 지식을 습득하며 그것을 공고화함에 있어서나 실제 농산 작업에서 성과를 거둠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한 번은 그가 1 정보나 되는 옥수수 채종포를 맡아서 가꾼 일이 있었다. 이 때에 그는 《육종 및 채종학》과 《작물학》 책들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농장의 종자용 황색마치와 백색마치 1 대 잡종을 훌륭히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교과서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실제에 있어서 몇 갑절이나 효과적이였다.

그는 남들이 한결같이 힘이 들다는 《농기계학》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사실 책에나 매달려 가지고는 아무리 애써도 뜨락또르의 구조, 작용 및 운전 조작법을 체득하기는 힘 들었다. 그래서 그는 틈 있는 대로 뜨락또르 운전수들을 찾아 가 뜨락또르 청소도 해 주고 운전수들의 수리 작업도 거들어 주면서 교과서의 도해에서 암송했던 부분품들의 구조, 작용 원리들을 실제 부속품들을 놓고 하나 하나 익혀 나갔다. 운전수들도 명산이의 지성에 감동되여 언제나 친절히 가르쳐 주군 하였다. 그렇게 하니 정말 리해하기 쉬웠다. 밤을 밝혀 가며 애써도 알 수 없던 《플란지야》의 작용 원리도 그것을 직접 해체해 놓고 하나 하나 운전수의 설명을 들으니 단번에 환하게 알려졌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혼자서는 몇 달 애써도 잘 리해할 수 없을 《농기계학》을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통달할 수 있었다.

명산이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배운 지식을 농장 일에서 활용하기에 힘 썼다. 지난 해 일부 포전들에서 엽장승의 피해를 받게 되였을 때였다. 디. 디. 티도 헥사클로란도 뿌려 보았으나 본엽 속에 깊이 들어 박힌 유충들만은 좀체로 박멸되지 않았다. 노랗게 말라 드는 벼포기들을 볼 때마다 명산이는 몹시 안타까왔다. 그는 해충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구해다 밤을 밝혀 가며 읽다가 《광물 유제》가 엽장승 구제에 효과적이란 것을 알아 내였다.

그는 《광물 유제》 제조에 달라 붙었다. 그러나 막상 착수하니 일은 뜻 대로 되지 않았다. 기술 지표에 지적한 대로 했으나 석유가 좀처럼 혼합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방법 또는 저런 방법으로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수십 차례나 반복 실험하던 끝에 물과 진흙을 먼저 혼합하고 다음 헥사클로란, 그 다음에 석유를 혼합하면서 온도를 약간 높여 주는 방법으로 끝내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엽장승 구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일부 맹상모 관리공들이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추비 시에 류안을 너무 주어 모가 도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거 농사를 망쳤군.》

하고 작업반원들과 로인들은 걱정하였다. 명산이는 그들에게

《걱 념려 마십시오. 제가 도장을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로인들은 이 어린 청년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새로운 농산 지식으로 무장한 명산이는 《토양 비료학》에서 배운 대로 벼 줄기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재(초목회) 물을 받아서 계속 뿌려 주었다. 벼'대는 날로 싱싱해 갔다.

마을 로인들은 못내 감탄해 하며 말했다.

《거 참, 기술이라는 게 좋기는 하군…》

참말이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이렇게 실천에 옮겨 본다는 것은 얼마나 흥겹고 유익한 일인가!

명산이는 자기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습과 실천의 밀접한 결합만이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 ×

무쇠공이도 3 년 갈면 바늘이 된다는 말과 같이 이악하고 완강한 노력 끝에 명산이는 올봄에 통신 수업을 끝마치고 기수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명산이는 이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기사에로의 길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떼였다.

본사 기자 김 영 길

물과 우리 생활



김 수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화합물이다.

물은 지구 우의 어디에나 있다. 지구의 표면에도, 땅 속에도, 지어 대기 중에도 있다. 지구의 표면적은 5억 1천만 Km^2 인데 그 중 3억 6천 100만 Km^2 가량이 바다이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 Km이며 바다에는 13억 3천만 Km^3의 물이 있다. 여기에 대륙의 강들과 호수의 물까지 합하면 대기수와 지하수를 제쳐 놓고라도 지구 우의 물의 총량은 13억 3천 75만 1천 2백 Km^3이나 된다.

물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단히 순환한다. 태양의 열을 받아서 증발된 수증기는 구름이 되고 또 그것이 비와 눈으로 되여 땅 우에 떨어진다. 땅 우에 떨어진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바다로 흘러 간다. 그 중 일부는 땅 속으로 스며 들어 가고 나머지는 증발하여 다시 대기중으로 돌아 간다. 이 과정은 부단히 반복된다.

수천 수만의 강들이 쉴 사이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다는 물이 가득 차서 해변'가의 물이 넘어 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물이 부단히 순환하는 까닭이다. 물의 순환이 없다면 대륙의 크고 작은 강은 모두 말라 버릴 것이다.

물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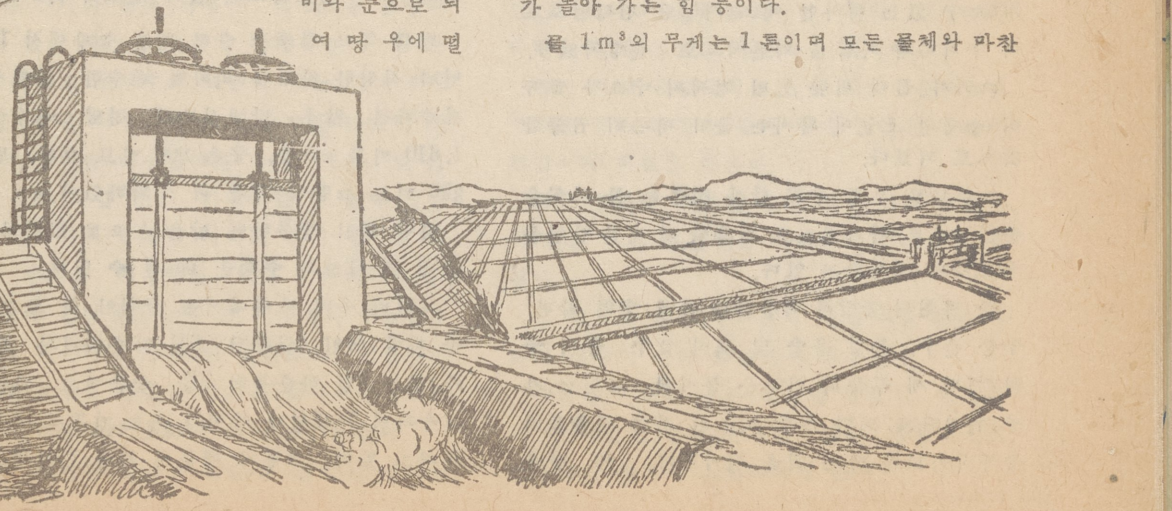
지구 상에 있는 물은 거대한 량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하천이 수행하는 일을 보기로 하자.

매년 지구 상의 모든 강은 3만 6천 Km^3의 물을 나른다. 이 물량이 수행하는 일은 무려 27만 조 Kg중 m나 된다.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은 막대한 량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다의 물도 많은 일을 한다. 바다'물은 여러 가지 힘에 의하여 부단히 운동하는바 그것은 바다'물의 운동—밀물과 썰물, 물'결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밀물과 썰물을 리용한 조수력 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다.

지구 상의 물이 수행하는 일의 원천은 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물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돌아 가는 힘 등이다.

물 $1 m^3$의 무게는 1 톤이며 모든 물체와 마찬



가지로 물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9.81 m/초^{2}이다. 이와 같은 힘에 의하여 하천의 물이 흐르는데 그 흐름의 높이에 의해 일의 량이 결정된다.

물이 수행하는 일은 유효한 측면과 유해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유효한 측면이란 수력 발전과 같이 하천의 물이 수행하는 일과 물 자체를 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유해한 측면은 하천이 노는 파괴적 작용이다. 우리는 바로 물의 이 유용한 측면을 우리 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물의 종합적 리용

물의 힘을 리용하는 문제는 물레방아를 사용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옛날부터 실현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원 전 3 세기 경부터 벌써 벼 농사와 함께 관개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원 222년에는 저수지를 축조하였는 바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벽골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낡은 사회 제도 하에서는 치산 치수 사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오직 해방 후에 와서 이 사업이 완전히 해결되게 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수리화를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추진시킨 결과 해방 전에 비하여 7 배의 면적에 해당되는 80여만 정보에 관개할 수 있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리화의 과업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그러나 물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된 오늘에 와서는 물이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과 정부는 물 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방침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물 자원의 종합적 리용이란 관개, 수력 발전, 수상 운수, 공업 용수 및 도시 급수 등의 수리 경제 제 부문의 리익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또한 가장 최소의 자금 지출로써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풍치를 조성하며 그 곳의 기후를 좋게 하고 홍수를 막으며 거기에서 물'고기를 기르며 저수지의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일으킨 다음에 흘러 내리는 물을 논밭에 대며 음료수, 공업 용수로 리용하며 강을 리용하여 나무와 짐을 실어 나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 보통 조건보다 30~70% 이상의 리득을 본다.

물은 동식물 생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식물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자기 무게의 70~90%에 해당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물 성장에는 많은 물이 요구된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질소, 린, 카리 등 성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성분들이 땅속에 아무리 많아도 식물은 그것을 빨아 올릴 수 없고 그것들이 물에 녹아 있을 때에만 빨아 올릴 수 있다.

또한 식물은 자기의 잎을 통하여 자체 내부에 있는 수분을 끊임 없이 증발시키며 그 대신 자기의 뿌리를 통하여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 들여 잎으로 증발시킨 물의 량 만큼 보충하는 한편 자체 내부에 소요되는 수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논'벼는 물론 밭 작물도 제대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토양 속에 일정한 량의 수분이 늘 저축되여 있어야 한다. 평균 논에는 한해 동안에 정보 당 6백~1천 mm 정도, 밭에는 그의 $\frac{1}{4}$~$\frac{1}{5}$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황해 북도 황주군 승리 협동 농장에서 1957년에 시험한 자료에 의하면 관수한 밭에서는 관수하지 않은 밭에서보다 정당 옥수수는 1,610 키로 그람, 콩은 200 키로 그람, 밀은 390 키로 그람씩 각각 더 수확하였다.

만약 물이 풍부하여 밭을 논으로 한다면 정당 2 톤 이상의 수확을 더 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곡식이 싹 트고 한창 자랄 때인 4월부터 6월 하순까지와 열매가 맺는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도 가물이 계속되며 7~8월에 장마가 지는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저수지와 물주머니를 더 많이 만들며 지금까지 수리화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더 공고히 하는 데 힘 써서 한 방울의 물도 허실 없게 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논에서 물 관리를 잘 하여 물을 랑비하지 않고 10%만 절약한다면 관개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화국적으로 57,000여 정보의 논을 더 확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만 하여도 114,000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다.

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물이며 쓰고 또 쓰고 여러 번 리용할 수 있는 것도 물이다.

관개 용 저수지를 잘 리용하면 많은 전력도 생산할 수 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은 일정한 기간을 요한다. 따라서 관개 용으로 이미 건설된 모든 저수지들을 발전을 겸하여 리용하는 문제는 국가 자금과 자재를 절약함에 있어서나 긴장된 전력 사정을 단시일 내에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m^{3}의 물이 1 m의 높이에서 떨어질 때 약 6 키로 와트의 전력을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건설된 관개 용 저수지를 중 발전을 겸할 수 있는 저수지는 60여 개 이상되며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능력은 대략 4만 키로 와트에 달하는바 이는 한 세대에서 20 와트 전등을 2 등씩 켠다 해도 100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전력 사정이 긴장되는 5월과 6월의 전기 사정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개수로 도중에 있는 급수공이나 락차공을 리용하여 목조 수차를 간단히 설치하여 수력을 리용한다면 정미, 제분, 탈곡, 사료 분쇄 작업 등을 기계화할 수 있다. (락차 1 메터에서 1 립방 메터의 물이 떨어질 때 목조 수차를 리용하면 대략 5 마력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관개 용 저수지와 수로들을 모조리 리용하여 중 소형 발전소도 건설하여 전기도 일구고 간단한 수차를 달아 동력으로 광범히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많은 하천들과 삼면의 바다는 교통의 편의를 돕고 있다.

강을 리용하는 수상 운수에서는 강이 일정한 정도의 깊이와 폭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강은 대체로 아래쪽은 넓으나 우로 올라 감에 따라 점차 좁아져서 떼가 흘러 내리지 못하며 배가 다니지 못 하게 된다. 이것은 썰물에 의해 더 심해진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 아래쪽에 갑문 (구조물)을 설치하여 물을 잡아 두어 물의 깊이와 폭을 보장하기도 한다. 또한 수상 운수에 편리하게 강을 련결할 수도 있다.

앞으로 갑문과 운하의 건설로 대동강과 재령강, 대동강과 룡흥강이 서로 련결될 것이다.

호수와 저수지들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비교적 찬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칠색 송어, 산천어 등은 보통 13~18 °C 의 물의 온도에서 살며 더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잉어, 붕어 등은 25~29°C 의 물 온도에서 잘 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호수나 저수지, 강 하천 등은 물'고기를 기르는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물은 공업에서 많이 쓰인다.

물이 끓어 증기로 될 때에는 그 체적이 2천배로 커지면서 큰 힘을 내게 된다. 끓는 가마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증기의 힘, 이것이 그처럼 육중한 기관차로 하여금 짐을 잔뜩 실은 렬차를 끌게 하며 수천 톤 급의 기선을 움직이며 화력 발전소의 타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흥남 비료 공장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고 그것을 공기 중에서 얻은 질소와 화합시켜 비료를 만든다.

화학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물은 다른 물질들을 용해하는 용매로 리용된다.

이 외에도 물은 우리들이 직접 마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리용된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생활에 절실히 필요하며 각 방면에 걸쳐 유용한 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의 명인

망이

손 영 종

12 세기 농민 폭동의 저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던 망이(亡伊)는 청주목 공주 명학소의 가난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망이가 자라나던 12 세기 중엽은 고려 봉건 국가의 륭성기도 지나 중앙 집권 체계가 약화되고 사회적 모순이 매우 첨예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왕을 비롯한 봉건 지배 계급 내부에서는 토지, 노비, 정권 쟁탈 음모가 빈번하였으며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다하여 환락에 잠기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봉건 지배 계급을 반대하는 대소 규모의 인민 봉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망이는 바로 이러한 동란과 투쟁의 시기에 자라 났다.

성도 없는 천민 출신으로 글도 배워 보지 못 한 망이였으나 그는 남달리 뛰여 난 재질이 있었고 세상의 움직임을 류달리 민감하게 알아 차리였다. 그는 자기들이 참을 수 없는 곤욕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일어 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우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한 동무였던 망소이와 상의하고 비밀리에 동지들을 규합하였으며 창, 칼 등 무기를 벼렸고 한편으로는 이미 계룡산을 근거지로 활약하고 있던 농민군과 련계를 맺고 폭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1176년(명종 6 년) 정월 25일, 드디여 망이는 자기의 동지들 그리고 명학소, 손개소, 복수소 등 인민들과 함께 폭동에 궐기하였다. 농민 폭동군은 망이를 추대하여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로 칭하였는바 《산행》이란 말 자체가 벌써 망이가 인민들 속에서 나온 지도자임을 보여 주고 있다.

망이의 지도 하에 궐기한 농민군은 맨 먼저 자기들을 직접 못 살게 굴던 공주 관아를 습격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그들은 60여 리 길을 단숨에 내달아 당일로 공주를 함락시켰다. 공주는 청주목 관하에 있는 서북의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충이였다.

그런 만큼 공주의 함락은 봉건 통치배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였으며 농민군들에게는 빛나는 첫 승리였다. 공주 함락의 소식은 관내 인민들을 총 궐기케 하였고 부근 고을들에서는 악질 관료, 지주, 향리 등을 적발 숙청하는 장쾌한 투쟁이 벌어졌다. 공주의 함락은 또한 다 같은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 헤매이던 청주목 및 전라도의 각지 인민들을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 이하 관료배들은 대경 실색하여 곧 무신들을 보내여 농민군을 《타이르게》 하였으나 농민군은 그 요구를 일축하였다.

이에 당황한 국왕은 소위《토벌군》을 파견하였다.

그 동안에 농민군은 공주 고을을 비롯하여 부근 주민들을 다수 인입하고 전투 훈련, 군량 준비 등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의 통일적인 명령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정부군의 소위 《토벌》이 개시된 지 28 일이 지나는 동안에 수차의 격전에서 매번 그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어 《토벌군》을 격퇴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개경에서는 다시금 정부군을 조직하여 파견했는데 원병과 함께 승군(僧軍)을 보내였다. 망이 지도 하의 농민군은 본래부터 사원들이 고리대로 또는 직접 봉건 지주로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가증스런 존재인데다가 이 번에 중들이 직접 참전한 것을 보고 더욱 분개하여 이들을 단숨에 처부셨다. 농민군은 련전 련승의 개가를 높이였다.

정황은 정부군에게 계속 불리하였고 패보는 련달아 개경으로 날아 들어 갔다.

왕은 어리석게도 부처의 힘을 빌어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꺾어 보려고 각종 종교적 의식들을 벌려 놓았으나 그것이 그 어떤 효과를 나타낼 리가 만무하였다. 초조해진 왕은 5월에 다시 백관을 모아 놓고 모책을 궁리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의 기세가 충천하여 그 예봉을 당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북에 또 큰 《적》이 있으니 회유 무마의 정책을 써서 《란민》을 안정시킨 다음에 주모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6월에 국왕은 공주 명학소를 승격시켜 《충순현(忠順縣)》으로 하고 그 곳에 현령, 현위 등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현의 명칭으로 보나 파견한 관헌의 《질》로 보나 그 관품으로 보나 봉건 정부로서는 소위 《큰 양보》를 한 것을 말한다. 우선 《소》내의 인민들의 신분이 천민으로부터 량인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파견된 자들은 국왕의 《어진 뜻》을 선전하면서 농민들을 기만하였고 농민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 늦어진 농사'일을 근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 갔다. 그러나 망이를 비롯한 농민군 골간 부대들은 관료배들의 번화 무쌍한 언행을 믿지 않았고 계속 경각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 해 6월에 근 2 년 동안 끌어 오던 서경 농민군에 대한 정부의 공격전은 끝났으나 서경 인민들은 산 중으로 들어 가 항전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망이 지도 하의 농민군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회유 정책을 쓰려고 시도하면서 9월에 무신들을 보내여 농민군과 교섭하게 하였다. 적들의 음흉한 속심을 알아 차린 농민군은 그들이 도착한 6 일 후에 례산현을 거쳐서 악질 관리로 이름났던 감무(작은 현의 원)을 잡아 죽이였다.

이것은 적 측의 전술에 대한 농민군의 립장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청주목 관내 농민군의 용감한 투쟁과 혁혁한 승리는 남도 각지에서 활동하던 인민들의 투쟁에 더욱 큰 불을 질렀다.

전라도 미륵산에서도,가야산 부근을 비롯한 경상도 일대에서도 각각 유력한 농민 폭동군들이 원수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야산에 근거지를 둔 농민 폭동군의 지도자 손청은 이 해 11월 1일에는 스스로 병마사가 되여 농민군을 지휘하여 합천, 초계, 거창, 합양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이에 질겁한 봉건 정부는 12월 말에 대장군 2 명을 시켜 우선 락동강 좌우의 농민군들을 《토벌》케 하였다. 이들은 1 개월 이상이나 훈련을 거듭한 다음 출발하였다.

통치배들은 경상주도와 진합주도(후의 경상도)에서의 《토벌》 작전을 순조로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도 농민군에 대하여 회유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국왕의 《인자성》에 망이, 망소이와 그 지도 하의 농민군들은 속아 넘어 갔다. 1177년 정월에 이들은 자진하여 개경으로 가서 왕을 만났다. 그들은 지방 관료보다도 그래도 국왕과 직접 화의를 맺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국왕은 겉으로 이들을 후대하고 망이의 고향을 영원히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두며 보통 평민과 같이 대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관리들을 시켜서 망이를 고향에까지 《호송》해

가게 하였다. 이것은 망이의 계급적 사상적 제한성에서 오는 근본적 실수였다. 그의 본을 따서 2월에는 전라도 농민군들도 투쟁을 그만두게 되였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아 농민군의 투쟁 력량을 약화시켰으며 봉건 통치배들로 하여금 농민군을 각개 격파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는 행동이였다.

그 후과는 곧 나타났다. 망이가 고향에 돌아 온 지 얼마 안 되여 정부군이 갑자기 부락에 덤벼 들었고 망이는 마침 나가서 없었으므로 망이의 늙은 어머니와 처를 붙잡아 갔다.

통치 계급의 속임'수에 격분하고 깨달은 망이는 다시금 동지들을 소집하고 2월 어느 날, 즉 그가 서울에 갔다 온 지 30 일만에 가야사를 쳐서 그 지방 인민들을 못 살게 굴던 중놈들을 처단하고 군량을 해결하였다.

그 후 9 일만에 농민군은 두 부대로 나뉘여 황려현(경기도 려주)과 진주(진천)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청주—개경 간의 중요한 련락 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전국을 더욱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는 것이였다. 청주목 일대 농민들은 망이가 다시 일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궐기하여 점차 망이 부대와 련합하였다. 황려현 공격 후 22 일만에 다시 강유력한 부대로 장성한 망이 지도 하의 농민군 부대는 홍경원을 공격 함락시킨 후 10여 명의 악질 승려들을 처단하고 정부에 보내는 항의 결전 선포문을 써서 주지를 시켜 개경으로 가져 가게 하였는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미 나의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원을 두어 백성들을 안정케 한다고 해 놓고는 인차 다시 토벌군을 보내여 나의 어머니와 처를 잡아 가두었으니 그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고! 차라리 칼날 밑에서 죽을지언정 결코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요 반드시 왕경(개성)을 무찌른 연후에야 그만 둘 것이다.》

이것은 원쑤들의 배신 행위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 번에는 기어이 악당들의 소굴을 뒤집어 엎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4월에 망이 지도 하의 농민군은 아주(오늘의 아산)를 함락시켰으며 이로써 청주성을 제외하고 청주목 령속하이 55 개 군, 현들이 해방되였다.

4~5월에 또한 의주, 정주(靜州)와 평양에서 각각 인민들이 궐기하였으며 봉건 통치배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었다. 1176~77년 농민 폭동은 이 시기를 최고 절정으로 하여 전국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였다. 5월에 정부는 《충순현》을 다시 폐지함과 동시에 망이 폭동군을 결정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의 계급적 의식의 불철저성, 사회 경제적 처지, 그리고 그들의 무장 투쟁 경험의 부족 등으로 하여 각지 농민군들 호상간의 련결은 거의 없었으며 그들은 결국 지배 계급의 기만, 회유 감언 리설에 넘어 가거나 장기간의 가렬한 전쟁에 견디여 내지 못 하고 말았다. 농민군 대렬은 내부로부터 점차 와해되여 갔다.

중세기의 모든 농민 폭동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망이 농민 폭동도 재차 궐기한지 100여 일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망이 지도 하의 농민 폭동은 전후 1 년 반 동안 광대한 지역에 걸쳐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그것이 이 시기의 여러 폭동들과 다른 점은 이 투쟁의 장기성, 그 범위의 광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이 사회의 최하층을 이룬 천민 집단을 중심으로, 천인 출신을 령도자로 하여 과감하게 전개되였다는 데 있다.

망이 지도 하의 농민 폭동은 또한 고려 봉건 지배 계급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앞으로 계속될 농민 폭동들을 물질 정신적으로 준비하였으며 고려 인민 특히 향, 소, 부곡 등의 천민들과 노비들을 해방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진일보를 달성하였다.

망이와 망소이 등 폭동군 지도자들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체육지식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함 철 린

근육은 골격과 함께 인간 유기체를 구성하는 기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체중의 약 50%에 해당되는 크고 작은 600여 개의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

근육은 마치 《고무줄》과 같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이 활동 과정을 통하여 근육이 발달된다.

근육 발달 여하는 체력 즉 사람의 《힘》을 규정하는 중요 척도로 된다. 즉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힘이 세고 활동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발달될수록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생활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근육이 발달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잘 아는 바와 같이 살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 하는 사람과 반면에 비교적 살은 없어 보이지만 강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 전자의 경우는 인간들의 자연 성장 발육 과정을 따라 발달된 《허벅살》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는 단련된 딱딱한 《참살》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살이 많다고 하여 근육이 발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참살》이란 근육 조직이 째이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강한 근육을 말한다. 즉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신체 전반에 걸쳐 근육 발달이 균형적이고 그것이 《참살》로 되게 단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근육이 발달되는 시기는 청년기이다. 청년기에 왕성한 육체적 활동과 로동 과정을 통하여 근육이 단련되고 《참살》로 발달된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 근육을 발달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힘 써야 한다.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일상적으로 개체 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로동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여 생활을 절도 있게 조직하며 군중 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을 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 매개 부위별에 따라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팔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①팔 굽혀 펴기— 땅에 팔을 세워 짚고 엎드려서 팔이 후들후들 떨릴 때까지 굽혔다 펴기를 계속한다. 이것은 평행봉과 철봉을 리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②아령, 곤봉, 수간, 기랴를 가지고 하는 운동은 팔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이다. 이 운동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게와 반복 회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운동은 주로 아침 식사 전과 점심 전 시간을 리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팔의 근육이 딴딴해질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리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①다리 굽혀 펴기— 두 손을 뒤'짐 지고 발을 약간 (20~30 센치) 벌리고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다리를 굽혀 편다.

②경사지와 계단 오르기— 무릎을 높이 올리고 빨리 뛰여 계단과 경사지를 여러 번 오르내리는 운동을 진행한다.

③외발 뛰기— 일정한 거리(40~50 메터)를 외발로 조약하여 갔다가 다시 발을 바꾸어 조약하여 온다.

④ 뜀'줄 넘기— 제 자리에서 조약하면서 혹은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뜀'줄 넘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상의 운동들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 번 진행하는데 시간적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두지 말아야 한다.

배의 근육과 등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①다리 들기— 누워서 혹은 앉아서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드는 운동을 반복하여 배의 근육이 아플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바로 누워서 상반신 들기— 두 명씩 조를 무어 한 명은 두 손으로 상대방의 발을 잡는다. 누운 사람은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잡고 상반신을 잡는다. 이 때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엎드려서 상반신 들기 — 역시 2 명이 한 조가 되여 한 명은 두 손으로 상대방의 발을 잡는다. 엎딘 사람은 두 손을 쭉 편 자세에서 상반신을 일으킨다.

④등배 운동—네 발 길이로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 등과 배를 앞 뒤로 깊이 굽혀 편다. 배의 근육과 등의 근육은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일명 길항근이라고도 함)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도 호상 밀접히 련결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대흉근과 소흉근(가슴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①두 팔을 좌우로 벌리기— 두 팔을 앞으로 들었다가 힘 있게 옆으로 벌리며 다시 앞 뒤로 휘돌린다. 점차 근육이 단련됨에 따라 아령을 쥐고 진행할 수 있다.

②고무줄 당기기— 약 30~40 센치 정도의 탄력성이 강한 고무줄 량단을 두 손으로 힘 있게 잡고(일명 엑스 반도) 률동적으로 팔을 좌우로 벌린다.

③팔 굽혀 펴기— 두 손을 땅 우에 자기 가슴보다 더 넓게 세워 짚고 팔을 굽혀 편다.

옆구리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① 한 손을 겨드랑이에, 다른 한 손을 우로 들고 옆구리를 좌우로 굽혀 편다.

② 두 손에 아령 혹은 동일한 중량의 물체(돌과 나무)를 하나씩 들고 우로 편 자세에서 옆구리를 좌우로 굽혀 편다. 그리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진 자세에서 좌우로 돌리면서 몸통운동을 진행한다.

이상의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운동을 호상 분리시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잘 배합하여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모든 근육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고 또 모든 근육을 동시적으로 발달시켜야 신체의 전반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과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근육 발달은 누가 인내성 있게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근육 발달이 왕성한 청년기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런 운동과 훈련을 년중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류의할 점은 처음부터 강한 육체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는 간단한 도수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기구 운동으로 넘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운동 회수와 물체의 중량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동시에는 호흡을 중단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간단히 정리 운동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근육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로동과 직업적 특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불균형적 발달을 퇴치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근육은 비교적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적게 움직이는 부분보다 더 발달된다.

례를 들면 우편 통신원들은 상반신의 근육에 비하여 하반신 특히 다리의 근육이 더 발달되며 반대로 자동차 운전수나 어부들은 하반신에 비하여 상반신 특히 팔의 근육이 잘 발달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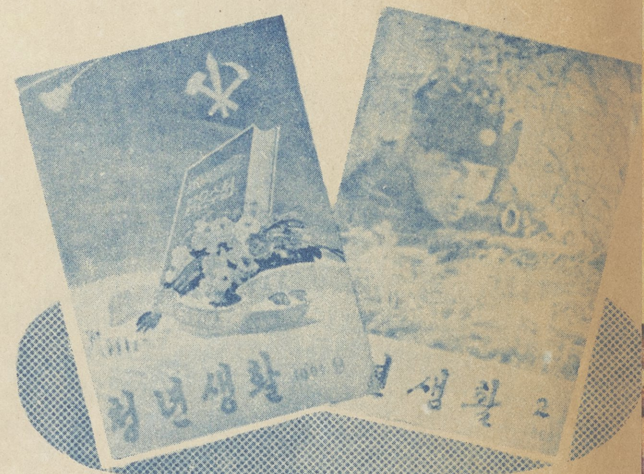
그러므로 자기의 직업적 특수성으로부터 오는 근육 발달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약한 부분에 대한 운동과 훈련에 더 많은 힘을 경주하며 특히 제정된 직종별 체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습화하여야 한다.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 (38—58, 83—85)
1963년 6월 11일 인쇄 1963년 6월 21일 발행
(값 35 전) 7—330333

《청년 생활》은 청년들의 친근한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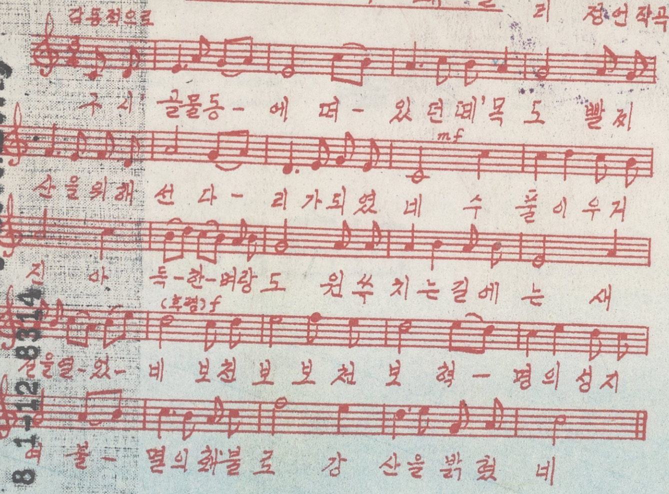




잡지《청년 생활》은 1948년에 창간된 이래 금년 6월호까지 총 165 호가 발간되였습니다.

불멸의 홰'불

박 세영 작사
리 정언 작곡



(2) 백두산 령봉을 바라본 대원들
황철나무 줄기에 념원을 새겼네
조선은 살아서 영원히 싸운다
침략자의 소굴을 산산이 부셨네
(후렴)

(3) 김 일성 원수님 맞이한 밤'거리
인민들의 가슴엔 희망이 불탔네
품속에 간직한 한줌의 흙에서
원쑤내친 조국 땅 새 날을 보았네
(후렴)

